



제3장
인물고사



1. 계양산에 매사냥 온 충렬왕과 제국공주

고려 충렬왕은 태자 시절을 몽고에서 보내면서 원나라 세조의 딸 홀도로 계리미실(忽都魯揭里迷失公主) 공주와 결혼했으며 부왕이 죽자 공주와 함께 귀국해 왕위에 올랐다. 고려에서는 몽고 공주를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라고 불렀다. 또는 줄여서 제국공주라고도 했다.

원나라와의 왕실 혼인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로써 고려는 역사의 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양국의 우호관계를 튼튼히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권신들의 세력에 억눌려오던 왕실의 지위도 회복,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주성을 잃은 종속국으로 전락하여 이후 원나라의 많은 간섭을 받게 되었다.

결혼한 제국대장공주가 고려에 와서 몽고양식의 생활을 하고 사사로이 부리는 사람도 원나라에서 데려옴으로써 고려왕실에는 몽고의 풍속·언어 등이 퍼지게 되었다. 충렬왕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고려 때에는 매사냥이 성행하였다. 특히 충렬왕은 몽고에서부터 매사냥을 즐겨한 터라 그것을 하고 싶어 못견뎠다. 국영 매방[鷹房]이 서울인 개경에 있었다. 그런데 사육하는 매가 민가의 닭이나 오리를 공격하여 피해가 커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왕은 응방 책임자였던 이탁(李擢)에게 명령하였다.

“네가 좋은 매방 자리를 찾아 보아라. 나는 매사냥을 못하면 살 수가 없느니라.”

이탁은 머리를 조아렸다.

“꼭 좋은 매방 자리를 찾겠습니다.”

그는 부하 박향(朴鄉), 윤수(尹秀)와 함께 장소를 물색하던 중 부평 계양산의 큰 고개까지 왔다.

“여기에 꿩과 산비둘기가 지천으로 많지 않느냐? 산 아래로는 서해도 보

이고 얼마나 좋으냐?”

이탁의 말에 두 명의 부하도 동의했다.

“그렇습니다. 전하께서 몹시 좋아하실 것입니다.”

충렬왕은 보고를 받고 몹시 기뻐했다.

“바다가 보이고 경관도 좋고 산도 좋고 사냥감도 많단 말이지?”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럼 당장 거기에 매방을 만들거라.”

왕이 명령했다.

그리하여 몇 달만에 계양산에 국영 매방이 생겼다. 왕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곳을 다녀갔다.

어느 해 가을, 왕은 왕비인 제국공주를 동반하였는데 왕비는 사냥을 싫어 하였다. 그런데도 따라나선 것은 왕이 후궁 무비를 총애하는 것이 싫어서였다.

임진강을 건너고 김포 통진에 도착해 하루를 묵었는데 제국공주는 숙식이 불편하다며 노여움을 터뜨렸다.

“전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임무인데 어찌 사냥만을 즐기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이 불편한 곳까지 데려와 고생시킵니까?”

왕은 말 한 마디도 못하고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경명현에 도착하고서도 왕비는 매방 책임자 윤수를 꾸짖었다.

“이 곳에는 꿩은커녕 거위 한 마리 없는데 왜 전하에게 사냥을 권하여 나까지 험한 길을 오게 한 것이냐?”

그리고 충렬왕에게 또다시 쏘아붙였다.

“전하가 사냥꾼 두목입니까? 왜 제왕이 왕도를 놓아두고 이런데 나온단 말입니까?”

충렬왕은 분하여 서리가 하얗게 깔린 풀밭에 그냥 주저앉았다.

“그래도 내가 고려 땅에서는 제왕인데 공주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왕비가 왕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이라고 한다

면 나는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합니다.”

걸핏하면 제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하는 제국공주 앞에서 충렬왕은 힘이 없었다. 공주가 돌아가면 원나라 황제는 책임을 물어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거나, 군대를 보내 제압할 것이었다.

왕은 묵묵히 앉아서 풀밭을 들여다보았다.

충렬왕은 제국공주와 충돌하면서도 그 뒤에도 기어이 계양산에 왔다. 그는 오랫동안 몽고에서 지내 말을 잘 났는데 그래서 때로는 말을 몰고 달리며 활을 쏘아 노루와 멧돼지도 잡았다. 그리고 이곳을 자랑스러워해서 원나라 사신을 동반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당시의 지명 계양을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시켰다.

【보충】 매방이 있던 곳의 고갯길이 그 뒤 경명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계양산 주변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한자 지명보다는 ‘징맹이고개’라는 지명을 사용하였다. 필자의 선친은 향토사 연구서 <인천지지>에서 충렬왕이 매를 징발(徵發)했다 하여 징매(徵鷹)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고 유추하였다.

2. 가좌동의 명당터를 놓친 윤관

고려 때에 여진을 정벌한 명장 윤관(尹瓘)은 애당초 문관으로 출발해 장군이 된 사람이었다. 문관시절인지, 여진을 정벌함으로써 북방의 고구려 영토를 일부 되찾아 명성을 날린 뒤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한 때 수주 목사(樹州牧使)로 부임해 와서 오늘의 부평과 서곶과 검단을 통치하였다.

어느 날, 도인 한 사람이 관아로 찾아왔다. 그는 도인과 더불어 자신의 통치 철학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가 잘 대접해서인지 도인은 관아를 떠나면서 말하였다.

“사또, 석곶에 가보십시오. 거기 천하 제일의 명당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 짚어 주시오.”

윤관이 지필묵을 주며 말했다.

도인은 그곳의 지도를 그려주며 말했다.

“매우 절묘한 곳이니까 지리를 살필 줄 아는 풍수가를 데려가십시오. 거의 확신을 하긴 하지만 확인해보면 극히 평범한 곳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매우 나쁜 곳일 수도 있으니까요.”

윤관은 며칠 뒤 수하 몇 사람과 풍수가를 데리고 석곶으로 말을 달려 명당터를 찾았다. 그 곳에 도착한 순간 그는 탄성을 올렸다.

“아, 참으로 훌륭한 명당이군. 내 부모님을 여기 묻어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를 수행한 풍수가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과연 최고의 명당입니다. 소래산맥이 삼십 리를 용트림하듯 힘차게 뻗어 내렸고 계양산의 한 줄기가 서쪽으로 뻗쳐와 마치 두 마리 용이 꿈틀거리는 듯합니다. 천마산은 천 년 된 학이 내려앉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안산이 수려하게 아름답고 그 아래는 섬이 있어 금학이 알을 품은 듯한 형상입

니다. 자손 대대로 부귀 영화가 따를 것입니다.”

윤관은 기분이 좋았다.

“그대의 해석을 들으니 정말 기쁘군. 금학이 알을 품은 듯한 그 자리에 묘를 써야 하는가?”

풍수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매우 까다로운 곳이라 지상과 지하의 형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기 여기를 천거한 도인이 절묘한 곳이라고 한 말이 생각나는군.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여기 달갈을 묻어 보아야 합니다. 사흘 안에 병아리가 저절로 부화되어 나오면 외형에 보이는 대로 최고의 명당이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후손에게 나쁜 액을 안겨 줄지도 모릅니다.”

윤관이 자신과 동행한 수하 이씨에게 명령했다.

“네가 달갈을 묻어라. 사흘 뒤 내가 확인하리라.”

윤관에게서 명을 받은 이씨는 지방 관아의 말직에 앉아 있는 하급 관리였으나 야심이 많고 풍수지리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윤관에게 한 번도 불충을 한 적이 없으나 천하 제일의 명당을 눈앞에 두고 갈등에 빠졌다.

“여기다 내 부모 묘를 쓰면 나와 내 자손이 부귀 영화를 누릴 텐데 아까워서 어찌나.”

고민하던 그는 주인을 배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삶은 달갈을 거기 묻었다.

윤관이 물었다.

“거기 달갈을 묻었느냐?”

“네. 세 개를 묻었습니다. 하나라도 부화하면 명당일 것이옵니다.”

사흘 뒤 윤관은 수하 이씨와 말을 달려 다시 그 곳에 갔다. 이씨는 천연스럽게 그 곳을 파고 달갈 세 개를 꺼냈다.

윤관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말했다.

“뭐냐? 부화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씨는 윤관이 달걀을 깨 보면 어쩌나 조마조마해서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나 윤관은 너무 실망이 큰 탓에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사옵니다.”

“에이, 내가 실없는 사람들 말을 믿었구나. 확인했으니 됐다. 가자.”

윤관은 다시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그 명당을 포기했다.

그 뒤, 이 씨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자 사람들을 속여 딴 곳에 장례 지냈다가 밤중에 묘를 파서 관을 꺼내 남모르게 그 곳으로 옮겼다. 아우와 아들과 노복(奴僕)이 이유를 물었으나 그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내 목숨과 집안의 흥망성쇠가 달린 일이다. 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 곳은 정말 천하제일 명당이어서 그의 아우와 아들이 벼슬길에 올랐다.

“아, 내가 명당을 잡은 덕분이야.”

이씨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그때 옛 주인 윤관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 윤관은 여진을 정벌하여 명성을 날렸으나 노년에 2차 정벌에 실패하여 빼앗은 땅을 다시 내주고 말았다. 그리하여 패장의 모함을 받고 문신들의 시기 속에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명분 없는 전쟁으로 국력을 탕진하였다 하여 처벌하자는 주장에 시달리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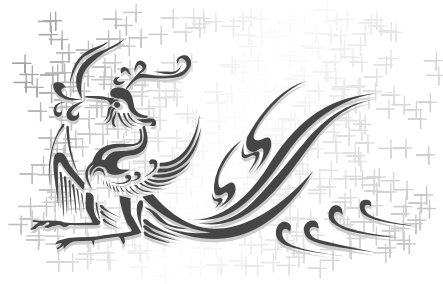
그 뒤 석곳에 묘를 쓴 이씨 가문에서 많은 인물이 입신양명하였다. 그 가문이 바로 고려대 최고의 명문가가 된 인천이씨라고 한다. 인천이씨는 대대로 그곳에 묘를 썼는데, 십여 년 전 제재단지가 들어서며 모두 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충】 윤관이 명당에 매우 집착했음을 알게 하는 일화가 하나 더 있다. 그는 죽어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에 묻혔다. 거기 여충사(麗忠祠)라는 그의 사당이 있다. 조선시대까지 그 곳에 역참이 있어서 분수원(分水院)이라고 불렀

는데 지금도 그 지명이 한자 표기만 바뀐 채 통용된다. 윤관이 석곳의 명당을 단념한 뒤 스스로 선택한 곳인지, 그가 죽은 직후 자손이 선택한 곳인지는 알 수 없다.

그가 거기 묻히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한 때 후손들이 한미해져서 묘 위치가 실전(失傳)되었는데, 청송심씨 집안에서 이 곳이 천하의 명당임을 발견하고 바로 맞붙여서 정승 심지원(沈之源)을 비롯한 여러 개의 묘를 썼다. 조선 영조 때에 이르러 윤관의 후손이 이를 발견함으로써 가문과 가문이 대립하는 송사(訟事)가 일어났다. 영조는 두 가문의 묘를 각각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기록이 <영조실록>에 있고, 파평윤씨 문중에서 그 때 일을 기록한 <분수원 산송전말(分水院山訟顛末)>이라는 문헌에도 있다.



3. 가정동에 온 개국공신 조반과 아들 조서강

6백여 년 전에 철마산 기슭에 와서 은둔하면서 가정(佳亭)이라는 정자를 세우고 뒷날 그 마을을 가정동으로 부르게 한 조반(趙畔)은 누구인가.

그는 황해도 배천(白川)사람으로 본관도 배천조씨였다. 고려 말에 참찬 벼슬을 지낸 조세경(趙世卿)의 아들로 중국과의 외교에 능숙했던 외교관이었다. 가정동은 그의 외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천조씨 집안의 기록이나 가정동에 구전되는 전설을 함께 엮으면 그의 생애는 마치 소설처럼 파란만장하고 흥미롭다.

조반에게는 원나라 관리와 결혼한 고모가 있었는데 그는 고모를 연고로 삼아 12세 때 아버지와 함께 원나라 수도 연경(燕京)으로 갔다. 거기서 과거에 급제하여 역관이 되었고 모국에서 오는 사절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다가 정변에 휘말려 체포될 위기를 맞아 아슬아슬하게 탈출했다. 고려의 연호로 공민왕 17년(1368)의 일이었다.

그 때, 그의 부하 하나와 원나라에서 동거한 여인이 동행하였다. 사방에 조반을 잡으라는 포상금을 건 공고문이 붙었다. 세 사람은 변장한 채 몇 번이나 위기를 벗어나며 고려 땅으로 가는 길을 밟아 말을 몰았다. 그러나 열흘 이상 그렇게 달리자 여자가 지쳐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조반은 여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어디에고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게. 내가 꼭 데려 갈 테니까.”

그러나 여자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죽어도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죽이고 가소서.”

조반을 수행하던 부하가, 상전이 못하는 일을 맡아 하기로 결심했다. 그

는 조반을 앞서 떠나게 한 뒤 그 여자와 동행하다가 벼랑에서 실족사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시체에서 조반의 신표인 반지를 빼고는 근방 사람들에게 후하게 돈을 주어 여자를 잘 묻어 주게 했다.

혼자 달려가 조반과 합류한 부하는 원나라 여자가 자신에게 설득당해 제 집으로 돌아갔다고 둘러대었다. 조반은 그럴 리가 없다고 깜짝 놀라며 발길을 되돌리려 하였다. 마침 순찰하는 원나라의 포졸들이 보였고, 부하는 조반을 설득하며칠 뒤 마침내 압록강을 건넜다.

고려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부하는 반지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다.

“나으리, 저를 죽이소서. 몽고 여자는 제가 죽게 하였습니다.”

부하에게서 자초지종 설명을 들은 조반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다.

“아, 불쌍하여라. 나는 신의 없는 남자가 되었구나.”

그 후 그는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다 한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우왕 8년(1382)과 우왕 11년, 조반은 고려 조정의 사절로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리고 권신 엄흥방(廉興邦)과 부평의 토지를 놓고 분쟁에 휩싸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토지의 소재지가 오늘의 가정동인지는 불분명하다. 아무튼 그 때 그는 투옥까지 되었으나 최영(崔瑩)의 도움으로 석방되었다. 그 뒤 최영이 살해되고 이성계의 역성혁명이 성공하자, 그는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를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낙향 은둔하였다.

한편 조선 왕조의 태조 이성계는 역성혁명에 대한 명 황제의 인준을 받지 못해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명 황제 주원장(朱元璋)은 인준은커녕 주청사(奏請使)들을 목베어 죽이고 ‘신하가 왕을 내몰고 스스로 왕이 됨’을 지적하며 이성계를 징벌하라 명령했던 것이다.

다급해진 이태조는 특사를 배천으로 보내 주청사가 되어 명나라로 떠나 줄 것을 간청하였다. 조반은 병을 핑계 대고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전하에게 이르시오. 나는 병이 있어 먼 거리를 가지 못한다고”

보고를 받은 이태조는 노발대발하였다.

“그런 께짐한 놈이 있나. 새 나라가 서고 새 임금이 앉았거늘 나라 위한

명령을 거부하다니. 내 이놈을 죽이리라.”

그러나 중신들이 만류했다.

“전하, 일을 그르치지 마옵소서. 그리고 신하가, 자기에게 벼슬을 주었던 옛 왕조에 대해 충성을 다하려 하는 것을 노여워하지 마시옵소서.”

중신들은 화를 가라앉히려고 권유하고 왕으로 하여금 직접 배천으로 찾아가게 했다.

태조는 몹소 배천으로 가서 조반에게 간청하였다.

“명황제가 나를 치러 10만 병력을 집결시킨다 하는데 그리하면 나 혼자 몸은 죽어도 좋으나 불쌍한 백성들이 도륙당할 테니 어찌면 좋소? 부디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주청사가 되어 주시오.”

조반은 한참을 고심한 끝에 승낙하였다.

조반은 사절단을 이끌고 명나라로 향했다. 도중 황해도 서흥의 관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꿈에 백발노승이 나타나 일러주었다.

“북행 길에 옛 절을 지나게 될 터인데 돌부처가 불당 뒤편 언덕 흠속에 묻혀있으니 꺼내서 잘 모셔 주오.”하고.

다시 가다보니 과연 옛 절이 있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말했다.

“어서 뒤편 언덕을 파라.”

언덕을 파헤치니 돌부처 셋이 나왔다. 그의 설명을 들은 스님들도 그를 향해 열심히 합장했다.

“소승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이(神異)한 일입니다.”

그들은 몹시 외경스러워하며 부처들을 잘 닦아 법당에 모셨다.

명의 황궁에 이르러 그는 황제를 배알했다. 황제는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호통치며 그의 목을 치게 했다. 형장에서 그런데 이상한 기적이 벌어졌다. 칼 잘 쓰는 집행수의 칼이 그의 목에서 튕겨 나간 것이다. 이상한 일이라 황제에게 보고하니, 호통을 치며 다시 집행하라 했다. 다시 칼이 튕겨나오니 황제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목을 치라 했다. 조반의 목은 무거운 칼로 세 번째 내리쳤으나 상처조차 나지 않았다.

황제 주원장은 그에게 물었다.

“어찌된 일이냐? 네 목은 쇠로 만들었느냐? 어디 목 한 번 만져보자.”

황제는 용상에서 내려와 그의 목줄기를 어루만졌다.

조반은 고개를 숙였다.

“황제 폐하, 제 목은 그냥 사람의 목일 뿐이옵니다. 저의 부모가 어떻게 쇠 목을 저에게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중국말을 그리 잘하느냐?”

황제의 물음에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어려서 전조(前朝)에 연경에서 공부했습니다. 원나라의 승상 타르타르(脫脫)의 수하 단평장(段平章)이 저의 고모부라 소년시절에 연경에 와서 공부했고 중서성역리(中書省譯吏) 벼슬을 했고, 원나라가 망한 뒤에는 모국에 가서 벼슬을 했습니다.”

조반은 말을 끊고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입을 열어 황제에게 호소했다.

“폐하, 원나라가 망하고 폐하의 나라가 흥성함은 역사의 흐름이 아니옵니까. 조선의 역성혁명도 그렇게 봐주시옵소서.”

황제는 용상에서 내려와 조반의 손을 잡고

“내가 하마터면 옛 동지를 죽일 뻔했네.” 하며 반기었다.

그리고는 주연을 베풀어주고 그를 국빈으로 대우하였다. 그의 손바닥에 옛 고사를 인용해 글을 썼고 거기 ‘조선(朝鮮)’이라는 국호도 들어 있었다.

마침내 조선 개국의 승인을 얻고 귀국하는 길에 조반은 서흥의 옛 절에 들렀다. 그는 자신이 찾아 모신 돌부처 세 개가 모두 목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스님들이 말했다.

“참으로 신이한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부처의 목들이 하나씩 떨어져 버렸습니다.”

날짜를 되짚어보니 바로 그가 죽을 뻔한 날이었다.

“아아, 이 돌부처들이 내 목숨을 세 번이나 구했습니다.”

조반은 감격하여 주지스님에게 요청하여 차진 흙으로 돌부처들의 목을

다시 붙여 놓고 치성을 올렸다. 그런 기적 때문에 그 절 이름은 ‘목숨을 이어 주었다’는 뜻으로 ‘속명사(續命寺)’가 되었고 사방에 알려져 찾아오는 신도가 끊이지 않았다.

조반은 이태조 앞에 복명하였다. 태조는 그의 공을 높이 치하하며 복흥군(復興君)이라는 시호와 함께 참찬문하시중(參贊門下侍中)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리며 조선을 위해 일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사양하고 외가가 있는 부평 천마산 기슭 마을에 ‘가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은둔하였다. 그리고 말년에 병이 들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고향 배천으로 돌아가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마쳤다.

그의 아들 조서강(趙瑞康)도 벼슬길에 높이 올랐다. 그는 태종 14년(1415)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후 세종 13년(1431) 춘추관 기주관이 되어 <태종대왕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후 경상도 관찰사, 형조 참의,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만년에 세종의 만류를 뿌리쳐 이조참판을 그만두고 부친 조반이 만든 가정에 은거하였다. 그러자 세종은 궁중화가를 보내 가정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고, 이후 많은 선비들이 가정을 주제로 시를 지었으며 안평대군은 이를 모아 <석호가정별업도>라는 서화집을 만들기도 하였다.

세종 26년 3월 10일에 그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쌀과 콩 각 30석, 종이 10런, 그리고 관을 내려보내 후하게 장사지내게 하였다.

【보충】 조서강의 묘가 석남동 산 119-2에 있다. 장방형 기대석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며 묘 앞에는 비와 문인석 한 쌍이 설치되어 있다. ‘가선대부사조참판조공지묘’라고 새겨진 비에는 한 송이의 연꽃을 얹어놓은 것 같이 조각한 옥개석이 있고 비 후면에 새겨진 글자는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마멸되어 있다. 묘역에 설치되어 있는 석물 등은 조선 초기 분묘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유일한 예이다. 인천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었다.

조서강은 <가정(佳亭)>이라는 칠언절구의 한시를 남겼다. <계양사>(2002년 계양구 발행)에서 옮겨 실는다.

乘閑勝日到村家(승한승일도촌가) 한가한 좋은 날에 시골집 찾아오니
十里芳郊萬樹花(십리방교만수화) 십리 떨어진 나무와 꽃에 덮였네
半醉騎驢無事客(반취기驢無事客) 거나하게 취하여 나귀에 탄 나그네
太平春興自堪誇(태평춘흥자감과) 좋구나 봄철이라 흥이 저절로 나누나

조서강이 가정에 은거하는 동안 찾아온 사람들은 안평대군, 정인지, 유의손, 황정홍, 이경석 등이었다. 이들은 각각 시를 한 편씩 남겼고 안평대군은 자신의 시를 포함한 그 시들에 그림을 얹어 '석호가정별업도' 라는 서화집을 만들었다. 여기 정인지의 칠언율시 시를 역시 <계양사>에서 옮겨본다.

圖畫依然更就看(도화의연갱취간) 그림 위의 좋은 경치 다시 살펴 보니
長堤別墅對青山(장제별서대청산) 장제 고을의 별장이 청산을 대하고 있구나
霜添柿栗三秋暮(상첨시율삼추모) 서리 덮인 감과 밤에 가을은 저물었는데
雨泥桑麻十擘間(우니상마십모간) 비에 젖은 전원은 밭 사이에 널려 있네
南浦歸帆堪終日(남포귀범감종일) 남포로 떠나오는 배 눈길을 스치는데
後園疎竹是開顏(후원소죽시개안) 후원의 성긴 대나무가 주름살을 펴는 듯하고
知君早有江湖性(지군조유강호성) 예로부터 그대 마음 강호에만 쏟렸더니
乞退他年自在閑(걸퇴타년자재한) 일찌감치 물러나 한가함을 즐기노도다

4. 양성지의 목안정(木鴈亭)과 서거정의 시

눌재(訥齋) 양성지는 김포시 양촌면 대포동 출신으로 조선 전기의 문화를 꽃피우게 한 걸출한 인물이다. 그의 사당이 앉아 있는 구릉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지금 인천과 김포의 경계가 지나간다. 경계 바깥은 김포이고 안쪽은 인천시 서구 금곡동의 좌동 마을이다. 그의 후손인 남원 양씨들은 대부분 좌동에 산다.

양성지는 태종 15년(1415)에 태어났다. 세종 23년(1441)에 진사와 생원에 합격하고,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뒤 경창부승과 성균관주부를 거쳐, 이듬해 집현전에 들어가 부수찬과 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고려사> 개찬(改撰)에 참여하였으며, 집현전 직제학이 된 뒤 <조선도도(朝鮮都圖)>, <팔도각도(八道各圖)>,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동국지도(東國地圖)> 등을 찬진하고 홍문관 설치를 건의하여 책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 뒤 <세조실록>, <예종실록> 등의 편찬에 참여하고, 공조판서를 거쳐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으로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졌다. 그는 대사헌에 재임되었고, 홍문관 대제학으로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성종 13년(1482)에 세상을 떠났다.

26세에 관계에 투신하여 68세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6명의 국왕을 보필해 40여 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역사와 지리, 인문 등의 문화를 꽃피우는데 눈부신 자취를 남겼다.

서거정은 양성지와 더불어 조선 전기의 문화를 이끌어간 인물이었다. 그는 양성지보다 5년 늦게 태어나 집현전 학사와 대제학 등 거의 같은 벼슬의 길을 걸었으며 8년 늦게 세상을 떠났다.

양성지처럼 6명의 왕을 섬겼고, <동인시화>, <동문선>, <필원잡기>, <골계전> 등 국문학사상 빛나는 저술을 남겼으며 <경국대전>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했고, 또 왕명을 받고 <향약집성방>을 국역했다.

그가 언제 학문의 선배이자 관로(官路)의 선비인 양성지를 찾아 좌동에 왔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가 남긴 <대포곡목안정팔경(大浦谷木鴈亭八景)>이라는 시는 좌동과 북서쪽 일대의 경승을 노래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양성지의 문집 <눌재집>에 실려 전하는데, 좌동 남원양씨 가문에 대대로 이어온 <눌재집>에는 양승용의 국역이 실려 있다. 여기서는 그 국역시를 옮겨본다.

대포곡목안정팔경(大浦谷木鴈亭 八景)

서거정

1. 뒷동산의 푸른 소나무(北岡靑松)

북녘산 푸릇푸릇 사철이 같은데
 골짜기 하늘로 치솟아 기분이 한없이 좋네
 위하여 주는 좋은 바람 끊이지 않아
 바다 물결 소리가 공중에 떠 있네

2. 남해의 못섬(南海諸島)

해 돋고 구름 개니 섬들이 열리고
 까마귀 머리 점점이 푸른 무더기 이루었네
 저 사이에 꼭 신선이 살고 있으려니
 자라가 산신삼을 신고 바다 건너 왔으리라

3. 동녘에 보이는 세 봉우리(東望三峯)

세 봉우리는 높이 옥 부용을 꽃은 듯

땅을 열고 하늘을 만든 것은 조화옹의 솜씨로세
아득한 강호에 드높은 궁궐같이
신선 사는 전각인 듯 구름 속에 보이네

4. 서쪽으로 강도에 읍하다(西控江都)
마니산이 저 구름에 솟았으니
옛날 삼청(玉淸, 上淸, 太淸)의 제사 터가 거기 있으리
모르는 체 한가히 사노니
황정경은 다 읽었으니 성관(星官)에 인사나 할까

5. 계양에 뜬 가을달(桂陽秋月)
계양에 뜬 가을달에 시름 잇는 사람이 많고
물은 멀고 하늘 높으니 달빛이 파도와 같도다
밤이 깊은데 어디서 쇠피리 부는고
삿대질하는 고깃배가 갈대꽃에 가리었네

6. 언덕 너머 고기잡이불(隔岸漁火)
올해 벼 기장농사는 이만하면 풍년인데
이 밤에 어촌의 깜박이는 등잔불인고
가만있게나 강남에 가을 물이 줄었으니
허연 농어와 누런 계가 아니 잡힐 수가 있으랴

7. 갈현의 승방(葛峴 僧寺)
아득히 갈현제 보니 푸르기가 천 겹인데
산사가 안개에 가리었으니 몇 번째 봉우리던고
늘어 가는데 무슨 명리이라
밤 깊은 바라지 바라보며 오경 종소리 기다리네

8. 남포의 나룻배(南浦 漕船)

돛단배 돛대가 삼밭같이 뻗뻗한데
남녘의 세금과 부역은 예보다 많다네
홀로 청산을 좋아해 배질을 못하니
해마다 오래 두고 야인의 집에 살으리

【해설】 서거정의 시는 당시 좌동 일대의 경승을 노래하고 있다. 1연의 뒷산 소나무란 관호동의 숲을 표현한 것이고, 2연은 지금은 매립되어 사라진 오류동과 금곡동 앞바다의 아름다운 섬들을 담았다. 3연의 세 봉우리는 지형으로 보아 계양산과 관호봉과 가현산을 가리킨다. 4연은 거기서 바라보는 강화를 도교적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고, 6연의 고기잡이 붙은 앞바다를 가득 메웠던 게잡이 햇불을 나타냈다. 7연은 빈대 때문에 불태웠다는 가현산 망해사를 표현한 것이고, 마지막 연은 황포 마을 앞 상무지 포구의 정경을 노래했다.

김포의 원로들은 좌동이라는 지명이 양성지의 사당 왼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그렇게 붙여졌다고 말한다. 또는 왕이 그에게 내린 좌리공신(佐理功臣)이라는 훈작(勳爵)에서 '좌(佐)' 자를 뽑아 그런 지명을 붙였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이전 국어의 음차 표기의 범례와 마을의 지형을 연관시키면 다른 설명을 내세울 수 있다. '쟈', '재', '쟈'이라는 소멸된 고유어가 있었다. 많은 소멸 고유어가 그런 것처럼 같은 뜻의 한자어 '성(城)'에 밀려 사라진 것이다. 이 '쟈', '재', '쟈'은 한자어로 음차할 때는 대개 좌(佐)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좌동의 뒷산에는 제법 규모가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터가 있다. 그러므로 이 마을의 지명이 '쟈[城]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5. 정희량의 은둔과 이인(異人)의 풍모

검암동의 앞산을 허암봉(虛岩峯)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조선 전기의 강직한 관리이자 도학자이며 차(茶)와 술에 심취해 많은 일화를 남긴 정희량(鄭希良)의 호(號)에서 유래한다. 지금도 산의 북쪽 중턱에는 그가 찾아와 은둔했던 암자 흔적이 남아 있다.

정희량의 출생지는 김포 또는 고양의 한강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성종 원년(1469)에 해주정씨 가문에서 철원부사 정연경(鄭延慶)의 아들로 태어났다. 소년기부터 명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아홉 살에 <논어>를 읽었는데 독후감을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척척 대답하였다. 질문의 의도를 송곳처럼 꿰뚫어보는 눈이 있고 글에 실린 주제를 그것에 맞춰 정리하는 총명함이 보였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희량이 참으로 총명합니다. 김시습이 어려서부터 신동이였다 하지만 그걸 넘어설 것 같소.”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희량의 어머니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을 하고 말했다.

“재(才)가 덕(德)을 넘지 않게 키워야지요. 당신은 그걸 유념해 주시오.”

“알았습니다.”

청년기가 되면서 그의 학문은 더욱 빛났다. 아버지는 그를 김종직(金宗直)의 문하로 보냈다. 그는 거기서 많은 인재들을 만났으며 때때로 학문이나 세상 일을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김종직은 그를 매우 신뢰하였다.

“너는 사유하는 깊이가 바다처럼 깊고 넓구나. 그게 나라 일에 이롭게 쓰여져야 한다.”

그는 아버지와 스승의 기대대로 24세이던 성종 23년(1492)에 과거에 장원급제해 생원이 되고 연산군 원년(1495)에 다시 대과에서 급제해 예문관 대교(待敎)가 되었다.

그는 젊은 임금 연산군이 제왕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다.

“전하의 행동을 그냥 놔두는 건 전하에게 불충하는 것입니다. 전하와 왕실과 종묘사직을 위하여 간언(諫言)을 드려야 합니다.”

그는 예문관의 선배들에게 말하였다.

선배들은 그에게 말했다.

“고관들께서 가만히 계신데 말직한 자네가 나서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네.”

그러나 그는 기어이 상소를 올렸다. 임금이 마음을 바로잡아 경연(經筵)에 근면할 것, 간언을 받아들일 것, 현사(賢邪)를 분별할 것, 대신을 경대(敬待)하며, 환관을 억제할 것, 학교를 숭상하며 이단을 물리칠 것, 상벌을 공정히 하고 재용(財用)을 절제할 것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그 상소는 그를 연산군에게 미움을 받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선무랑·행예문관봉교로서 <성종대왕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무오사화 때, 사초(史草) 문제로 윤필상 등에 의하여 신용개·김전 등과 함께 탄핵을 받았는데, 난언(亂言)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장형(杖刑) 100대, 유배(流配) 3천리의 처벌을 받고 의주에 유배되었다가 연산군 5년(1500) 5월 김해로 유배장소를 옮기었다.

그 때 모친상을 당하였으나 유배중이라 집에 오지 못했다. 이듬해 귀양살이에서 풀리자 그는 모친의 묘에서 통곡했다.

“어머님,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그는 어머니 묘를 지키는 수묘(守墓)살이에 충실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소. 격분하기 잘하는 전하의 손에 여러 사람

들이 피를 흘릴 것ियो.”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강직하게 직언을 한 것이 죄가 되어 이미 귀양살이를 하고 왔는데 또 벌을 받을 일이 있나요?”

“나는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것ियो. 전하 곁에서 늘 달콤한 말로 ‘전하의 통치야말로 훌륭합니다. 전하는 성군(聖君)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죄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곁에 데리고 있던 종에게 말하였다.

“산나물이 먹고 싶구나. 나물을 캐오너라.”

종이 그의 곁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자 마지막으로 어머니 묘에 절을 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 곳을 떠났다. 마을에서 가까운 행주 강가에 신을 벗어 놓았다. 자신이 물에 빠져죽게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 길로 부평땅 검바위 마을(현재의 검암동)로 왔고 뒷날 자신의 아호를 따서 허암봉이라고 이름이 붙은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이름 없는 도인처럼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어느 날 마을의 좌수가 찾아왔다.

“나는 마을 좌수입니다. 마치 도인처럼 사시려 하는군요.”

“나는 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정희량은 겸손하게 말했다.

좌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빙그레 웃었다.

“내게 우리 마을을 그린 시를 한 수 지어 주시면 이 마을에서 조용히 사시게 도와 드리지요.”

정희량은 시상을 더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붓을 들어 거침없이 써 내려갔다.

평사낙안(平沙落雁) 넓고 평평한 모래밭에 기러기 내려앉고

원포귀범(遠浦歸帆) 멀리 떠난 배가 포구로 돌아오네
 어촌낙조(漁村落照) 어촌에 해는 떨어지고
 산시청람(山市晴嵐) 들과 산에는 아지랑이 피어 오르네
 동정추월(洞庭秋月) 마을과 들판에는 가을달이 밝고
 용상모우(湧湘暮雨) 용상에 해가 저무는데 비가 내리네
 연산모종(煙山暮鐘) 안개 낀 산에는 저녁 종소리 울리고
 강촌모우(江村暮雨) 강촌에는 저녁비가 내리네

좌수는 약속대로 조용히 그가 살게 도와 주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이 조금씩 알려지고 부평부사가 관심을 갖게 시작하자 그는 향나무에 옷을 벗어 걸어놓고 다시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 뒤 그는 김포로 갔고 거기서 시 한 편을 남기고 배를 타고 사라졌다.

일모창강상(日暮滄江上) 해 저문 강 위에
 천한수자파(天寒水自波) 차가운 물결이 저절로 이는데
 고주선조박(孤舟宜早泊) 내가 타고 갈 외로운 배는 이미 강가에 대어져 있도다
 풍랑야응다(風浪夜應多) 밤새 풍랑이 사납겠구나

그가 종적을 감춘 것은 곧 또 한 번의 사화가 일어날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었다.

그 뒤 허암은 이천년(李千年)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와 차와 선(仙)에 마음을 싣고 천하를 유랑하였다. 그는 말년에 평안도 정주 심원동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암은 자취를 감추기 전에 높은 학문의 경지에 올랐다. <허암 선생 시집>은 천하의 명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유력한 국학연구 번역단체인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그의 전집인<허암유집>을 번역 간행하였고 국내 대

학의 권위 있는 한문학자들이 그의 글을 연구하여 많은 논문을 썼다.

그는 또 조선 시대의 이인(異人)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런 풍모는 소년시절에 축지법을 썼다는 전설에서부터 드러난다. 그 때 부친이 강원도에 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따금 저녁식사를 하고 모친에게

“가서 아버님을 뵙고 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면 아침에 부친의 편지를 품고 귀가했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도(道)와 선(仙), 단(丹) 등 한국의 정신수련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천재학자이며 단종에 대한 신의와 절개를 지킨 김시습은 노년에 자신이 가진 선과 도의 세 분야를 제자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천둔검법연마결(天遁劍法鍊魔訣)은 홍유순에게 물려주고, 옥함기(玉函記)와 내단법(內丹法)은 정희량에게 주고, 참동용호비지(參同龍虎秘旨)는 윤군평에게 주었다고 한다.

채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채식의 한국적 전통으로 천채환(千菜丸)을 제일로 친다. 그것은 정희량이 여러 가지 신비한 약초를 섞어 처음 만들었던 것으로 심장기능에도 좋아서 ‘불로 안심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희량이 몸을 감추고 천하를 방랑할 때 무위하게 세월을 보내지 않고 매우 강인한 심신수양에 애를 썼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의 이름은 한국의 전통 다도(茶道)에도 중요하게 등장한다. 그가 바가지로 차를 마셨다던가, 밤에 차를 끓여 마시기를 즐겼다던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 마시는 정취를 잘 표현한 시문 〈夜坐煎茶(야좌전다)〉가 지금도 다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밤에 앉아서 차 달이기

밤이 얼마쯤 되었는지 눈이 오는데
맑은 등의 옛집은 추워서 잠이 안 오네
상머리에 이끼 낀 병을 손수 들어다가

푸른 바다처럼 맑고 찬 샘물 쏟아 붓고
 문무의 화력을 고르게 다스려
 벽위에 달 떠오르고 연기 맑게 생기네
 솔바람이 우수수 빈 골짜기에 울리듯
 날아서 흐르는 물이 부딪쳐 긴 내에 울리듯
 천둥이 진동하고 번개가 달리는 기세 아직 그치지 않더니
 급히 가던 수레가 환원으로 굴러 넘어가 떨어지듯
 잠깐 구름이 걷히고 바람도 멎으니
 파도는 일지 않아 맑고 잔잔하네
 큰 표주박을 한 번 기울이니 얼음 눈처럼 빛나고
 간담이 뚫리어 시선과 통한다네
 천천히 깨어 혼돈 구멍을 뚫어
 홀로 말을 타고 신선의 세계에서 노니네
 돌아보니 예전 마음속의 자갈밭
 요마와 속님이 모두 망연해지고
 다만 마음의 근원을 깨달아 넓게 읊기어
 마음대로 가서 아득한 하늘에서 속세를 벗어난 곳에 노니는 듯
 내 들으니 상계의 진인이 깨끗함을 좋아하여
 안개를 들이키며 똥과 더러운 것을 씻네
 놀 먹고 옥을 먹어 나이 늘일 수 있고
 골수를 씻고 털을 베어 동안처럼 곱네
 나도 세상에 묻는 것이 이와 같은데
 어찌 마른나무와 오래 살기를 다투리
 그대는 못 보았는가, 노동이 굶주림에 삼백 조각으로 즐긴 것을
 오천 마디는 부질없이 아득한 넓은 글자라오

다도를 즐기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시를 보면 정희량이 찻물 끓이

기에 있어 이른바 오비순숙탕(五沸純熟湯)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술바람 우수수 빈 골짜기에 울리듯'이라는 표현은 제1단계인 계의 눈, 제2단계인 새우의 눈, 제3단계인 물고기의 눈을 넘어서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날아서 흐르는 물이 부딪쳐 긴 내에 울리듯'은 용천연주(湧泉連珠:구슬 같은 방울이 솟아나는 모습. 다도에서는 섭씨 91도의 상태에서 끓는 물의 모습이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천둥이 진동하고 번개가 달리는 기세는 아직 그치지 않더니'는 물결이 뛰어 오르고 북 치는 소리가 나는 등파고랑(騰波鼓浪)의 상태를 가리킨다. '잠깐 구름이 갇히고 바람도 멎으니 파도는 일지 않아 맑고 잔잔하네'는 순숙(純熟)된 단계이고, '노동이 굽주림에 삼백 조각으로 즐긴 것을'이라는 시구는 당나라의 시인 노동(盧同)이 노래한 '붓을 움직여 맹간의(孟諫議)가 보낸 햇차를 사례하다'라는 시에서 '첫 머리에 보이는 월단 3백 조각'을 윤색한 것이다.

지금 허암봉 기슭에는 한국차문화협회와 인천의 가천문화재단이 1997년에 세운 '정희량 차샘비'가 세워져 있다.

그의 이인적(異人的) 풍모는 술마시기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도 전설로 남아 있다. 조선 시대 중기와 후기에 걸쳐 술꾼들에게 '정희량 모주 퍼마시듯 한다'라는 속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도 호기스럽게 술을 마시는 술꾼들에게 남아 있다.

1950년대에 시인 전봉건과 김수영, 김종삼 등이 그랬다. 그들을 서울 청진동의 골목 술집에서 두부 반모를 안주로 놓고 빨리 취하기 내기를 하듯 말술을 마셨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말하였다.

“이봐, 우리 오늘은 정희량 식으로 마시자구.”

“그러세. 정희량은 탁주를 마셨다 하면 큰 그릇으로 셋이요, 청주라면 큰 그릇으로 둘, 소주는 큰 그릇으로 하나를 마셨어. 먼저 가슴을 싹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술잔으로 예의를 갖추답시고 훌쩍거리기는 것은 싫고, 큰 잔에 부어 꿀꺽꿀꺽 마셔야 성이 찬다고 했던 말야.”

정희량의 술마시기 풍모는 5백년이 지난 뒤에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시

인들에게 그렇게 전해졌다.

그의 이름은 민속주를 만드는 주조법에도 등장한다. 담가서 사흘만에 걸러 마실 수 있는 '혼란주' 라는 술이 있었는데 그것을 창안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정희량의 이름은 한국 전통음식 연구가들에게서도 나온다. 신선로를 그가 발명했다는 것이다. 그가 사화를 예견하고 산 속에 숨어 지낼 때 <주역(周易)>에 나오는 수화기제(水火既濟)의 이치로 창안해 각종 야채를 넣고 처음 끓여 먹었다. 사람들이 그 맛에 경탄하고, 조리하는 그의 모습이 마치 신선과 같아 신선로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의 직계 후손들이 평안북도 정주에 살다가 한국전쟁 때 월남하여 부평에 살고 있다. 지금 검암동에도 해주정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들은 정희량의 아우 정희신(鄭希信)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은둔할 당시 아우가 찾아 왔다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해설】 국문학계에서는 정희량의 학문을 '방외인(方外人) 문학'의 범주에 넣는다. 한문학은 신분사회의 지배층이 지위를 굳히고 우월감을 높이는 데 필요한 문학이었다. 상류사회 출생이 아니면 한문을 배우기도 힘들었지만 설령 기회를 만나 제대로 배운다 해도 소용이 별로 없었다. 그런 조건에서 나타난 것이 방외인 문학이다.

방외인은 지배체제 안에서 주어진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는 이단자들이었다. 그들은 방랑을 하다가 지취를 감추어 행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긴 작품도 적다. 자기 작품 세계를 뚜렷하게 전해서 문학사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한 경우도 있지만, 후대의 평가가 그럴 따름이고, 당시의 독자와 관련시켜 본다면 고독한 예외자로서 기이한 짓을 했을 따름이다. 학계에서는 그 선두주자로 김시습을 꼽는다.

세조를 거부한 김시습처럼 정희량도 연산군을 거부하여 은둔하는데다 김시습에게서 선도(仙道)를 전수 받은 터였다. 그래서 그는 스승과 같은 학문의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6. 율도를 개척한 조헌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고 충청도 옥천(沃川)에서 전공을 세우고 금산(金山) 전투에서 전사한 조헌(趙憲)은 김포시 감정동에서 출생했다. 명종 22년(1572)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에 있었는데 한 때는 고향에서 가까운 김포 통진(通津)의 현감을 지냈고 부평에 유배된 적이 있었다. 그가 심문한 죄인이 옥에서 죽었는데 너무 심하게 다뤘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었다.

고향에서 가깝고 유배시절을 보낸 터라 그는 모월곶(북쪽 서곶)과 석곶(남쪽 서곶) 연안의 섬들을 잘 알고 있었다.

조헌은 이따금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언제고 왜놈들이 쳐들어 올 것이오. 그놈들은 짐승 같은 놈들이라 우리 백성들을 사정없이 도륙할 것이오.”

누군가가 물었다.

“왜국에 가 보지 않고 그놈들이 쳐들어 올 것이라고 어떻게 예감할 수 있소이까?”

조헌은 소년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려서 집이 빈곤했지만 이웃 마을의 서당에 다녔다. 서당에 갈 때는 여우재라는 고개를 넘어야 했다. 어느 날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더니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런 일이 매일 계속되었다.

하루는 서당 훈장이 말하였다.

“얘야, 어째서 얼굴에 화색이 없고 병색이 보이느냐? 너 무슨 일이 있지?”

“스승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훈장이 말했다.

“혹시 서당에 오는 길에 이상한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승에게 사실대로 고백했다.
다 듣고 나서 스승이 말했다.
“그 처녀가 구슬을 네 입에다 넣었다가 다시 제 입으로 가져가지 않더
냐?”
“그랬습니다.”
선생은 눈을 크게 떴다.
“그 처녀는 여우가 둔갑한 것이야. 네 정기를 빼앗아가려고 그러는 것이
야. 그러니까 다음에는 입을 맞추며 구슬을 네 입에 넣거든 꼭 다물고 쏘살
같이 뛰어오너라”
다음날 조현은 스승이 시킨 대로 했다.
그랬더니 처녀는 그를 붙잡고 구슬을 도로 빼앗으려고 덤벼들었다. 그렇게
욕심각심하다가 조현이 구슬을 삼켜 버렸다. 그러자 처녀는 흰여우로 변해
서 구슬프게 울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조현은 서당으로 가서 스승에게 사실을 말했다.
스승은 탄식했다.
“아까운 보배가 없어졌구나. 너는 구슬을 삼켰으니 지리(地理)는 통달하
지만 천문(天文)은 모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끝내고 조현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서당 훈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여우 구슬을 삼켰기 때문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환히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내 육감도 맞을 것이
요. 수년 내 왜구가 쳐들어 올 것이요.”
어느 날, 그가 한양에서 고향 김포로 가마를 타고 갈 때였다. 한 저자를 지
나게 되어 그는 말에서 내렸다. 조용히 민생을 살피고 싶어서였다. 거기서
그는 한 총명한 소년을 발견하였다.
명석을 깔아놓고 검은콩을 파는 상인의 앞에 있던 뒷박이 갑자기 없어졌
다. 다른 상인이 잠깐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은 채 어디로 간 것이었다. 콩을

사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두 사람이 나타나자 상인은 당황했다.

“남은 콩이 석 되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나눠야 할지. 이거 내 손으로 한 줍씩 한 줍씩 나눠 담아야겠소이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지요.”

콩을 사려는 사람 중 하나가 말했다.

“그럼 어떡하지요?”

그 때 그 앞을 지나던 열살 안팎의 소년이 나섰다.

“이렇게 하시지요.”

콩 파는 상인은 콩을 잘 고르기 위해서인지 길이가 한 자 반 정도 되는 깨끗한 막대기를 갖고 있었는데 소년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런 다음 노끈으로 그 길이를 재고 반으로 접어 막대기에 2등분 점을 찾고 거기에 노끈을 매어 평형 저울을 만들었다. 그리고 양끝에 자루를 매달아 균형을 맞추었다. 그것은 경험이 아니라 순식간에 눈앞에 일어난 일을 보고 생각한 지혜라는 것을 조현은 알 수 있었다.

“나 좀 보자, 애야.”

조현은 소년을 불렀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 소년이 성이 김가이고 몰락한 양반의 후손이며 부모가 죽어 숙부에게 얹혀 살며 글공부는 한 적이 없다는 것 따위를 알아냈다. 잠깐 동안 묻고 대답하는 사이에 소년의 총명함은 더 많이 드러났다.

“애야, 앞장서거라. 네 숙부를 만나야겠다.”

그는 숙부를 만나자마자 신분을 밝히고 입을 열었다.

“이 아이를 내게 주시오. 내가 곁에 두고 잘 가르치겠소.”

소년의 숙부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조정의 당상관이 나타나 조카를 마치 양자처럼 기르겠노라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어유, 고맙습니다, 나오리.”

조현은 소년을 데리고 다니며 글을 가르치고 세상살이에 대한 판별력과 경륜을 터 주었다. 나이 열여섯 청년이 되자 양반가의 딸을 아내로 맞아 장

가들게 했다. 그리고는 자기 재산을 절반쯤 정리해서 넘겨주고 울도로 데리고 갔다.

“내 말을 잘 듣거라. 수년 내 왜놈들이 쳐들어온다. 너는 이 재산으로 이 섬을 개척해라. 그 돈이면 가난한 백성들 십여 가구는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백성들을 먹이면서 바다를 막고 논밭을 개간하거라.”

김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분부대로 할 것이옵니다. 전란이 나면 나으리와 나으리 일가를 안전하게 여기 모시겠습니다.”

“그래. 내 식솔들은 모르지만 아마 나는 오지 못할 것이다. 뒷일을 부탁한다.”

김청년은 그의 명에 따라 울도의 바다를 막고 논밭을 개간하고 집을 지었다. 벽에는 찰쌀을 발라 칼로 도려내 끓이기만 하면 밥이 되게 하였다.

조현의 예견대로 왜란이 일어나자 김청년이 달려 왔다. 그 때 조현은 가족들에게 의병출병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었다.

“나는 비록 말직에만 들었지만 전하의 은혜와 나라의 은혜를 입은 몸이다. 나는 문관 출신이지만 기꺼이 의로운 병사들을 모아 왜적과 싸울 것이니라.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석곳의 울도로 가라. 거기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그리고 그는 가족과 표연히 헤어졌다. 얼마 후 충청도 옥천(沃川)에서 의병을 일으켜 1,700여 명을 모아 영규(靈圭) 등 승병과 합세하여 청주를 탈환하였다. 이어 전라도로 향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금산(錦山)으로 향했으나, 전공을 시기하는 관군의 방해로 의병이 대부분 해산되고, 700명의 의병으로 금산전투에서 분전하다가 의병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그는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열공(文烈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전란이 끝난 뒤, 조현의 식솔은 물으로 나오고, 김청년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오다가 매립되어 울도가 육지로 바뀌면서 이주해 갔다.

【보충】 김포시 감정동에 가면 여우재라는 지명 간판이 세워진 언덕길이 있다. 변화한 곳으로 자동차들이 많이 다닌다. 그 곳이 여우 구슬 전설의 현장이다.

조현이 임진왜란을 예언하고 대비한 것은 여우 구슬 때문이 아니라 <토정비결(土亭秘訣)>을 쓴 토정(土亭) 이지함(李之涵)과 교유하며 들은 말 때문이라는 또 다른 전설이 있다. 그가 석곳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부친이 별세했다. 그는 죄인이라 거상(居喪)도 못하고 비통해하고 있었는데 친구인 이지함이 위로하러 찾아왔다. 그리고 조현 곁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이지함이 말했다.

“이상한 느낌이 오네. 잠깐 같이 밖으로 나가세.”

조현은 친구가 도통하고神通력이 있는 사람이라 얼른 등을 밝히고 앞장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대문을 열면서 소리쳤다.

“토정, 하늘을 보게. 큰 유성이 하늘을 긋고 지나가네.”

토정은 그의 등뒤에서 탄식했다. “불길한 신호일세.”

“뭐가 불길하단 말인가?”

조현은 유성의 자취가 사라진 하늘에 눈길을 보낸 채 물었다.

“십오년 뒤에 큰 전쟁이 나겠네. 사방에 피가 뿜치겠어.”

“명나라인가 왜인가?”

“왜일 것일세.”

조현은 이지함의 예언을 믿었으므로 울도를 개척하여 대비했다.

7. 공자 위패를 보호한 송윤

송윤(宋玆)은 조선 선조 36년(1630) 간재울 마을(현재의 검암동)의 진천 송씨(鎭川宋氏) 집안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 한 말직의 벼슬살이를 한 그는 30대에 낙향하여 고향에서 부평향교를 중심으로 모인 유림들을 가르쳤다.

그가 37세가 되던 인조 14년(1636년)에 병자호란이 터졌다. 청나라 군대는 강화를 침공하고 왕과 조정이 피신한 남한산성으로 진격하면서 부평을 통과하였다. 그들은 부평부 관아와 부평 향교에 불을 질렀다.

고향 간재울 마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그는 문득 아들을 앞에 불러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남의 존경을 받는 유림이다. 청나라 오랑캐가 부평에 온다면 향교가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향교로 간다. 너는 어머니와 가족을 지켜라.”

그는 가족을 뒤로하고 단숨에 계양산 경명현을 넘어갔다. 향교에 도착하니 향교 대성전이 불타고 있었다. 유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이미 모두 피신한 터였다.

“아아, 공자님과 열성위의 위패를 태울 수는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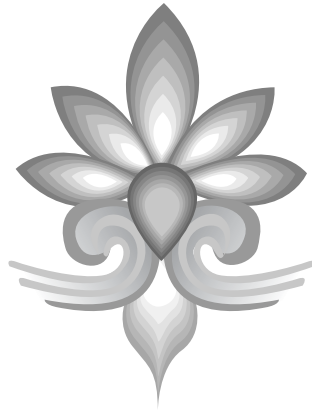
그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위패들을 거두어 달려나왔다. 그는 조금 전 자신이 넘어온 계양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산에 있는 장사굴과 임진왜란 때의 전설을 알고 있었다. 옛날에 소년장사가 태어나 살았다는 그 장사굴은 임진왜란 때 유생들이 적군이 오기 전 공자를 비롯한 명현들의 위판을 숨겼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이번에도 거기야. 거기라면 안전하겠지.”

그는 혼자 끙끙대며 위패들을 장사굴로 옮겼다. 호란이 끝나고 세상이 안

정되자 그는 향교 재건운동을 벌여 재건축에 나섰다. 대성전이 완공되자 위패들을 다시 모셨고 그는 부평 전체의 유림 대표가 되었다.

그 후 송윤은 그런 충정이 알려지면서 벼슬길에 올라 가선대부동지중추 부사 겸 오위도총부부총관이 되었다. 그리고 80세까지 장수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부평향교에는 그의 이름이 유림 명부인 청금록에 제1번으로 등재되어 있다.



8. 밀정의 칼에 쓰러진 애국지사 류인무

류인무(柳寅茂)는 조선 철종 12년(1861) 시천리 진주류씨 가문에서 출생했다. 소년기에 한양으로 가서 공부하면서 우국지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였다. 그는 기울어 가는 나라를 구하려 분투하였는데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백범일지>에 이름이 나온다.

백범 김구(당시 이름은 김창수)가 일본인들에게 무참하게 피살된 명성 황후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군 첩보장교 쓰치다(土田) 중위를 살해하고 사형선고를 받아 인천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였다. 마침 고향에 와 있던 류인무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왜놈들이 감히 대궐로 난입해 와서 황후를 찢어 살해한 일을 복수한다고 왜놈 장교를 죽인 건 의로운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감옥에 가두다니!”

그는 단숨에 인천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자 거리에서 그는 웅변을 토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김창수라는 사람을 구하십시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나라의 체면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웁습니다. 조선은 힘없는 나라지만 조선인은 힘없는 백성이 아니라는 걸 왜놈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 저기서 호응을 했다. 그렇게 그는 동지들을 구했다. 목숨을 걸고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백범이 중죄인이라 면회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는 감옥으로 돈과 함께 쪽지를 보냈다.

김창수 선생, 우리는 당신을 동지라고 부르겠소이다. 우리는 동지를

구출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소이다. 그러니 감옥에서 자중자애하면서 때를 기다리시오. 우선 이 돈을 갖고 음식이라도 사서 먹고 간수를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시오.

백범은 고맙다는 답신을 보냈다.

류인무는 학식 있는 사람들과 관아에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여 백범을 구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다. 탄원서를 쓰고 법적으로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왜 우리 임금님은 왜놈들 눈치를 보며 이 나라를 다스리신단 말입니까?”

그는 통곡하며 땅을 쳤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동지들을 규합해 13명의 결사대를 만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동지들, 소란작전을 펴야 합니다. 인천항의 중요한 장소 몇 군데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릅시다. 그러면 인천 전체가 소란해질 테니 그 틈에 감옥을 부숩시다.”

“좋소이다. 류동지의 말대로 합시다.”

류인무와 동지들은 거사일을 잡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거사를 하기 사흘 전 김구가 스스로의 힘으로 감옥을 부수고 탈출함으로써 계획은 무산되었다. 백범이 그가 넣어준 돈으로 감옥의 간수를 매수하여 탈옥하였던 것이다. 류인무는 즉시 백범의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서울 교외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백범은 자신을 위해 애써 준 것에 감사하자 류인무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백범이 탈출할 곳을 지시해주었다.

백범은 그 후 마곡사의 승려가 되어 수련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류인무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가족들에게 이별을 고했다.

“나는 나라를 찾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난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

각하고 열심히 살거라.”

그는 북간도로 망명했다. 당시 북간도는 20여 년 전부터 동포 유민들이 모여들어 막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을미년 의병의 최고봉이었던 유인석도 항일독립운동기지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다. 포수 출신으로서 저 혼자 힘으로 왜놈과 일제 앞잡이들을 수백 명이나 처단했다는 홍범도도 기회를 잡으려고 북간도를 왕래하고 있었다.

류인무는 훈춘(琿春)에서 뜻있는 동포들을 만났다.

“동지들,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학교를 세웁시다.”

혈벗고 굶주리는 동포들이 허리띠를 졸라 그를 도왔다. 그는 강전(江典) 학교를 세워 애국청년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1906년 한 젊은이가 학교를 도울 길이 무엇인가 의논하겠다고 찾아왔다.

“저는 함경도 증성 출신 김충식이라 합니다. 청나라 사람들 속에서 쌀장사를 하여 돈을 좀 모았습니다. 앞으로 선생의 학교를 돕고 싶습니다.”

젊은이는 단장을 들고 중국식 푸른 마뽕(마고자 같은 저고리)을 걸치고 있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운 것이 마음에 걸렸다.

“고맙소. 쌀 한 되 밀 한 되라도 좋소이다.”

“그럼 잘 되었습니다.”

문득 조선말 발음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류인무는 젊은이를 향해 돌아섰다. 그 때 눈길이 부딪쳤다.

“너는 조선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

“그렇다. 나는 일본사람이다.”

아, 자객이로구나 생각하는 순간 젊은이는 단장 손잡이를 쑥 잡아 당겨 칼을 뽑았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류인무의 몸을 푹 찔렀다.

그리하여 류인무는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일본인 자객은 일본의 만주 침략의 예비작업을 위해 첩보대가 파견한 60명의 현역장교 신분 밀정 중 하나였다. 백범 김구가 살해한 조선지역 잠입 첩보장교와 같은 밀정이었다.

한편 백범은 1911년 안명근의 테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일본경찰에 체포당해 15년의 징역형을 받아 인천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뒷날 중국 상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활동했다.

【보충】〈백범일지〉를 보면 백범이 탈옥에 성공한 뒤 류인무를 만나 감사하는 상황과 그의 집으로 옮겨 유숙한 일 따위가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다.

‘(전략)우리는 당일로 공덕리 박 진사(朴進士) 태병(台秉)의 집에 도착하였다. 이춘백이 먼저 안사랑으로 들어가서 얼마 있더니 키는 중키가 못되고 얼굴은 별에 그을려 가무스름하고 망건에 검은 갓을 쓰고 검소한 옷을 입은 생원님 한 분이 나와서 나를 방으로 맞아들였다.

“내가 유인무요. 오시기에 신고하셨소. 남아하처불상봉(男兒何處不相逢)이라더니 마침내 창수 형을 만나고야 말았소”

하고 유인무는 희색이 만면하여 춘백을 보며

“무슨 일이고 한두 번 실패한다손 낙심할 것이 아니란 말일세. 끝끝내 구하면 반드시 얻는 날이 있단 말야. 내 전일에도 안 그러던가.”

하는 말에서 나는 그가 나를 찾던 심경을 엿볼 수가 있었다.

나는 유인무에게,

“강화 김주경 댁에서 선생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허다한 근로를 하신 것을 알았고, 오늘 존안을 뵈거니와 세상에서 침소봉대(針小棒大)로 전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실물로 보시니 낙심되실 줄 아오. 부끄럽소이다.” 하였다.

내가 용두사미란 말로 내 과거를 검사하였더니, 유인무는,

“뱀의 꼬리를 붙들고 올라가면 용의 머리를 보겠지요.” 하고 웃었다.

주인 박태병은 유인무와 동서(同壻)라고 하였다. 나는 박 진사 집에서 저녁을 먹고 문안 유인무의 숙소로 가서 거기서 묵으면서 음식점에 가서 놀기도 하고 구경도 하며 돌아다녔다. 며칠을 지나서 유인무는 편지 한 장과 노자를 주어 나를 충청도 연산 광이다리 도림리(桃林里) 이천경(李天敬)의 집으로 지시하였다.’

9. 삼일만세를 주도한 심혁성

심혁성(沈懣誠)은 1888년 서곶의 한들 마을(현재의 백석동)의 토착성씨인 풍산심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한학을 배우고 부평향교에 나가 공부하며 선비의 길을 닦아가던 그는 청년시절에 계양면 오류리로 이사했다.

그는 천도교를 믿으며 애국심을 가꾸어 가고 있었다. 사람이 곧 하느님이며 만물이 모두 하느님이라고 보는 천도교의 중심 교리에 따라 인간을 누구나 평등하게 보고, 근본적으로 귀천이 있을 수 없다고 믿었다.

사람마다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 여기기를 한울님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사상에 젖어 있었다.

그가 스물두 살이던 1919년 한반도는 삼일만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인천에서도 3월 6일 인천상업중학과 인천공립보통학교가 시위를 하고 동맹휴학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강화에서도 1천 명의 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천도교의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이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천도교인들이 호응하자 심혁성도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받았다. 그는 각마을에 비밀리에 연락원을 보내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더 이상 일제의 종이 되어 살 수는 없소. 민족의 자존과 자립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3월 중순 며칠 동안 계양과 서곶 지역을 비밀리에 이동하며 동지들을 구했다. 47세의 농부인 이담, 48세의 농부인 최성욱, 그리고 임성춘, 전원순 등이었다.

그의 가슴속에는 생각할 때마다 긍지를 갖게 하는 조상이 있었다. 조선 명종 때부터 선조 때에 걸쳐 여러 도의 관찰사와 우의정을 지내며 청백리로 명성을 날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모아 팔도의병도대장(八道義兵都大將)이 되어 왜군과 싸웠던 심수경(沈守慶)이었다.

심혁성은 황어장에서 장날이 열리는 3월 24일을 거시일로 잡았다. 당시 황어장은 계양과 서곶 일대의 상업중심지로서 장날에는 인구가 가장 많이 운집하는 장소였다. 심혁성과 동지들은 장터에 군중이 가장 많이 운집한 때를 노려 태극기를 휘두르며 달려나갔다.

“대한독립만세! 대한 사람의 혼은 죽지 않았다!”

일본 경찰은 이미 계양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순사부장 이하 순사 10명을 보내 경계하고 있었다. 군중이 수백 명으로 삼시간에 늘어나자 일본 경찰은 총칼로 진압하기 시작했다.

“총칼을 두려워하지 마시다. 지금 우리 정신이 죽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죽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듯 외치며 군중을 독려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경찰 4명의 집중하는 근봉 공격으로 얻어맞고 쓰러지며 체포당했다. 그 자리에서 포승으로 묶여 면사무소로 끌려갔다.

“너희는 섬나라로 돌아가거라, 침략자들아!”

끌려가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소리쳤다.

지도자가 잡혀가자 군중은 더욱 단결했다. 그들은 일제히 면사무소로 몰려가며 외쳤다.

“심혁성 선생을 내놓아라!”

군중의 일부는 그냥 돌아갔으나 3백여 명이 계속 경찰을 위협했고 마침내는 그들을 제압해 심혁성을 탈환해 포승을 풀어 주었다. 이 때 신변의 위협을 느낀 순사가 군중의 선두에서 심혁성을 탈환한 이은선(43세)을 군도로 내리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휘둘렀다. 이은선이 현장에서 절명하고 여섯 명이 부상당하였다. 심혁성의 체포와 이은선의 순절소식이 알려지면서 황어장의 만세시위는 다시 터져 올랐다.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

심혁성은 멀리서 들리는 그 함성을 들으며 수레에 실려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다.

11월 19일 경성 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일본인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전부터 강제합방을 인정하지 않아 항상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3월 1일 전천도교 교주 손병희 선생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한 이래로 조선 안 각지에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며 조선독립 시위 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았소. 나도 그 취지에 찬동하여 같은 행동을 취하고자 황어장에서 태극기 휘두르며 그 곳에 모인 군중들에게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게 했소.”

그의 의연한 언행에 재판정은 잠시 침묵했다고 한다.

그는 1년 3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21년 5월 초순 그는 황어장날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장사치들의 물품을 사서 한군데 쌓아 놓고 외쳤다.

“돈 안 받고 가져 드리니 한 가지씩만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그는 다음 장날에도 나와 그렇게 선심을 썼다. 누군가가 물었다.

“당신은 부자가 아닌 듯한데 왜 선심을 씩니까?”

심혁성은 대답했다.

“나라가 없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 나눠준 것이었다. 모두 나눠줘서 빈손이 되자 그는 “나는 대한의 백성이므로 왜놈의 통치를 받을 순 없소.”

하면서 처자식을 거느리고 두메산골로 은신하고 말았다.

그는 지리산, 덕유산, 또는 강원도 심산유곡에서 30년 동안 약초를 캐어다 팔아 연명을 하며, 때로는 훌쩍 만주로 떠나 우국지사들을 찾아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오곤 하였다.

8·15 광복 후 그는 산사람 생활을 접어치우고 적수공권 맨주먹으로 고향인 한들 마을로 돌아왔다. 그의 아들 심홍기는 가문의 도움으로 한 의학을 배웠고 한약방을 경영해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10. 연희동의 미국 할아버지 김기선

근대에 서곳이 낳은 훌륭한 인물로 김윤화(金潤花), 김기선(金基善) 부자(父子)를 빼놓을 수 없다.

인천은 개신교가 처음 들어온 고장으로서 한국 기독교사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연희동은 그 역사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등 미국 출신 목사들은 1891년 인천에 최초의 한국 개신교 교회인 내리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독교의 선교를 확대하면서 계몽활동을 폈다.

김윤화는 내리교회에서 처음 기독교를 접했다. 그는 연희동에서 대대로 살아온 상산김씨(尙山金氏) 집안 출신이었다. 그의 부친이 인천 해관(海關. 지금의 세관)에서 일한 터라 인천 시내 다운타운 율목동에도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면서 내리교회에서 나간 것이었다. 그는 조원시(趙元時. 미국명 G. H. Jones) 목사의 신임을 받았고, 조원시의 격려와 지원 속에 1903년 12월 연희동 고향집에 기도처를 만들고 첫 예배를 올렸다. 이것이 인천 서구지역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연희교회의 시원이 되었다.

미국의 북감리교파 소속이었던 조원시 목사는 선교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이민사업에 전념하였다. 미국의 이민사업가 데슬러(D. W. Deshler)의 요청으로 내리교회 교인들에게 이민을 권유함으로써 1902년에 하와이 이민이 시작되었다. 당시 하와이 설탕회사에서는 사탕수수 밭에서 일할 노동력이 부족하여, 대한제국 정부에 이민 노동자들을 보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정부는 적극 호응하게 되었고 조원시 목사가 앞장서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주로 내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102명의 이민단이 그 해 12월 22일에 미국 상선 게릭호(S. S. Gaelic)편으로 제물포항을 출발,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이민자 대부분이 교인이었으므로 그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조원시 목사는 전도사들을 파견하였다.

어느 날, 조원시 목사가 김윤화에게 말했다.

“나는 전도사들 외에 한국의 장래, 한국 기독교의 장래를 위해 충명한 청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 합니다. 당신의 아들 기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화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들이 20세기 최고의 선진국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감격, 그리고 외아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픔 때문이었다.

“목사님의 뜻이라면 보내겠습니다.”

그 날 밤, 김윤화는 아들을 앉혀 놓고 말했다.

“조원시 목사님이 너를 미국에 보내 공부시키겠다고 하셨다. 가겠느냐?”

열 여섯 살이던 기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아버님.”

몇 달 뒤 김윤화는 자신의 외아들 기선과 처남 박제원(朴齊源, 개화기의 주요한 인물인 박영효의 아우)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 그는 아들과 처남을 남겨 놓고 귀국해 연회교회를 일으키는데 열성을 바쳤다. 1911년에 권신일을 목사로 초빙해 정식교회로 발족시켰고 신도 수를 차츰 늘려갔다.

시카고에 남은 김기선은 미국 생활에 잘 적응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대 후반에 링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0대에 명문 프린스턴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용모가 수려하고 행동이 의연하여 ‘동양의 귀공자’로 불리웠다. 1920년, 학비를 벌기 위하여 고학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공화당의 중요한 간부였다. 집주인은 그의 사람됨을 보고 공화당 본부에 추천했다. 그 때 미국 공화당은 하딩(Warren. G. Harding)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선거운동에 열중하고 있었다.

김기선은 그를 아끼는 미국인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조선인이야.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기대를 걸었지만 작년

봄 우리 조국의 독립운동을 윌슨은 외면했어. 나는 윌슨에게 실망했어.”

미국인 친구가 물었다.

“그렇다고 학교를 자퇴할 건가?”

“기꺼이 자퇴하겠네.”

김기선은 프린스턴대학 2학년을 중퇴하고 공화당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선거 운동에 몰두, 하딩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편 그는 경제에 대한 판단력도 뛰어나서, 투자한 도료(塗料)회사의 주식이 뛰어오르는 바람에 돈을 모았다. 그리하여 1923년 하딩 대통령이 사준 1등석 왕복 배표를 들고 귀국하여, 조원시 목사가 세운 영화학당(현재의 영화초등학교 및 중학교) 출신이며 내리교회 신자인 신언마(申言麻) 처녀와 결혼하였다.

“예수쟁이 김윤화네 아들이 미국서 돌아왔대. 재산이 억만금도 넘는다네.”

“영화학당 나온 처녀를 색시로 얻어 같이 미국으로 간다네.”

연회동과 주변 마을 사람들은 그의 금의환향에 감격하여 술렁거렸다.

그는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다시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거기서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가던 중 유타 주(州) 옥덴(Ogden)시를 지날 때였다. 그의 아내 언마가 갑자기 배를 안고 신음했다.

“여보,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부부는 급히 옥덴 시에 내려 아기를 낳았다. 잘 생긴 아들이었다.

“고마운 옥덴 시, 나는 이 곳을 잊지 못 할 거야. 아기 이름을 옥덴으로 할 거야.”

그래서 그의 장남은 미국 이름이 옥덴, 한국 이름은 옥돈(玉敦)이 되었다.

그는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많은 돈을 희사하였다.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는 이승만 박사도 있었고 서재필 박사도 있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 들이닥쳤다. 그가 충성을 다해 보필해 온 하딩 대통령이 서거한 것이었다. 모든 정치적인 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는 몇 달을

인생무상과 허무감 속에 살았다. 그는 현금과 주식, 부동산 등 적지 않은 재산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의미 있게 쓸 곳을 찾지 못했다.

아내 언마가 말했다.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요. 가서 조원시 목사님처럼 교육사업을 해요.”

1926년, 부부는 옥돈과 현숙, 어린 남매를 안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다. 그는 일본 경찰의 위협적인 감시를 받으며 살았다. 그러나 장차 민족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설립을 결심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망라하는 대규모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갖고 온 재산으로 부평에 땅을 사들였다. 미국에서는 매월 그의 출자금에 따른 배당금이 송금되어오고 있었다.

그 무렵 인천 시내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

“이 달에도 김기선 장로에게 미국에서 보내온 돈이 하도 많아 조선은행 인천지점 금고가 바닥이 났다네.”

“나도 들었네. 그래서 현금 수송차가 경성에서 돈을 가득 싣고 내려왔대네.”

김기선은 앞으로 보내 올 돈으로 충분히 학교를 세울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다.

한편 그는 고향인 연희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귀국 즉시, 아버지가 만든 예배소를 증축했으며, 1938년에는 토지와 건축비를 내놓아 연희동 238번지에 본당을 이전 건립했다. 교회의 재정을 위해 과수원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 유서 깊은 연희감리교회는 비로소 본격적인 근대식 회당을 갖추게 되었으며 재정도 튼튼해졌다.

그러나 일제가 그를 놓아두지 않았다. 일제는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가 육영사업을 위해 부평에 사놓은 토지들을 강제로 징발해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쓰비시(三菱) 군수창 등 군수공장을 만들었다. 남은 것은 율목동의 집과 연희동의 농장뿐이었다.

은인자중하며 모멸의 세월을 보내고 8·15 광복을 맞았다. 링컨 고등학교

교 후배인 하지 중장이 그를 찾아왔다.

“선배님, 제가 코리아의 군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정치는 안 할 것이요. 하딩 대통령 참모를 하면서 정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요. 정치가 아니라면 당신을 도울 수 있소.”

그는 한 때 서울로 가서 군정청의 비정치적인 자리에 앉아 일했다. 그러나 해방조국이 좌우익의 대결과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무렵 서재필 박사도 귀국한 길에 그를 찾아와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갔다. 그는 서재필에게 말했다.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단순한 편의주의만 생각하고 점령지 정책으로 다스리는 걸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분단을 향해 치닫는 것도 실망입니다.”

“나는 이승만이 하도 심하게 견제를 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오. 하지만 당신은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지 않소? 나하고는 등을 돌린 사람이지만 이승만을 도우시오.”

서재필의 말에 김기선은 고개를 흔들었다.

“싫습니다.”

정부수립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을 보냈다.

“선생님, 대통령 각하께서는 선생님이 초대 미국 대사로 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거절했다.

“나는 정치는 싫소. 그냥 필부(匹夫)로 살아갈 것이요.”

그는 슬하에 9남 1녀를 두었는데 가훈처럼 늘 하는 말이 있었다.

“너희는 절대로 정치만은 하지 말아라.”

미국과들이 득세하여 나라를 휘두르는 때라 거기 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가진 아들들이 말하였다.

“도대체 아버님은 왜 정치를 싫어하십니까?”

그는 조용히 답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치를 하려면 험잡꾼처럼 술수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게 필부처럼 조용히 살았다. 한국전쟁을 겪고 1950년대 후반에는 출생지인 연희동에서 선친과 자신이 애써서 만든 교회와 과수원을 지키며 살았다. 교회 신도가 계속 늘어났으므로 1959년 다시 재산을 헌납해 연희동 산 71번지에 새 회당을 건립했다. 그리고 79세 되던 1968년에 연희동 고향집에서 세상을 하직했다.

그는 자식을 열 명이나 낳았다. 그 중 장남 옥돈은 1957년에 이광수의 장편소설 <사랑>을 인천에서 극영화로 촬영 제작해 애관극장에서 상영해서 이름을 날렸고, 다른 아들들은 언론인, 교수, 육군 대령, 회사 대표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다. 그들도 지금은 태반이 세상을 떠났다. 옥근(玉根), 옥균(玉均), 옥구(玉九) 씨가 생존해 미국 뉴욕에 살고 있고, 옥현(玉顯) 씨만이 연희동 아버지의 고토 과수원을 지키며 살고 있다.

한편 연희교회는 1980년 현위치인 심곡동 352-4번지로 증축 이전하였다. 이 곳 역시 김기선의 자녀들이 내놓은 토지였다.

【보충】 필자의 유년 시절에는 김기선 선생에 대한 기억이 있다. 필자의 조부가 선생과 유년기에 이웃에서 같이 자란 터라 노년에도 허물없이 지낸 때문이었다. 그 때 필자는 다른 사촌형제들처럼 그분을 ‘미국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는 늘 단아한 차림으로 성경책을 옆에 끼고 조용히 걸었으며 얼굴에는 온화함이 넘쳤다. 오랜 미국생활 때문인지 손아랫사람에게도 먼저 말을 걸어 인사했으며 아이들을 좋아했다. 간혹 양복을 입은 미국 사람이 늘씬한 승용차를 타고 찾아왔고 언젠가는 군모에 별 2개를 붙인 장군이 온 적도 있었다. 선생은 찾아온 미국인 손님과 맨드라미가 빨갛게 익어가는 텃밭 앞에서 악수하며 유창한 영어로 배웅하곤 하였다.

그분은 때때로 필자의 할아버지 댁 뒷마루에 앉아서 할아버지에게 미국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고구마처럼 생긴 공으로 하는 축구(미식축구) 이야기밖에 필자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글을 쓰기 위하여, 국내에 남은 유일한 그분의 혈육인 김옥현 선생을 그분의 숨결이 남은 연희감리교회 옆 과수원으로 오랜만에 찾아가 보았다.



11. 걸출한 서예가 류희강

서곳이 낳은 걸출한 서예가 검여(劍如) 류희강(柳熙綱)은 1911년 시시내 마을(현재의 시천동)에서 출생하였다. 고향에서 한학을 배우고 부평향교에서 공부한 뒤 성균관대학교의 전신인 경학원 명륜학원에 다녔다. 그 학교에는 소장 유학자로 명성을 떨치던 8촌형 희진이 재직하고 있었다.

류희강은 중국 상해로 건너가 상해 미술연구소에 들어가 서양화를 공부하고 북경으로 가서 중국 서예와 금석문을 공부했다.

8·15 광복 직후 귀국한 그는 서울의 중국어 신문사 한성일보사에서 일하다가 인천으로 돌아와 인천 예술인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중국에서 사귀 미술평론가 이경성 등과 함께 인천의 문화를 부흥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1952년경부터 서예에 몰입했다.

1952년 인천문충회관에서 박세립, 장인식 등과 함께 대동서화 동인회를 결성하고, 그 모임의 부회장이 되어 활동하면서 서예활동에 온 정열을 바쳤다. 1953년 국전에서 그는 박세립, 장인식 등과 나란히 연속 입선하였다. 그리고 그는 1955년부터는 특선과 문교부장관상을 연이어 수상하고, 1958년까지 계속 4회에 걸쳐 특선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에는 추천작가가 되었으며 1959년에는 국전 심사위원 자격을 갖게 되는 국전 초대작가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의 글씨체를 임창순은 서평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검여 유희강의 초기 글씨체는 중국의 황산곡풍을 많이 따랐고 맹부의 육조풍에도 접근하려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대개가 틀에 맞고 아담스러운 자세를 잃지 않았으며, 뚜렷한 개성보다는 유행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듯한 감을 주었으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세계를

발견하고 창조하여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검여풍의 완성을 보았고
원숙한 경지에 들어갔다.

이 무렵 대만(당시 국명은 중화민국)에서 한국의 서예와 미술을 둘러보러
온 동작빈 등 중국의 석학들은 당시 일류 서예가들의 작품에는 거의 눈길을
주지 않고 류희강의 작품 앞에만 머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한다.

류희강은 작품에 열중하는 것과 함께 실무와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서
울 관훈동에 검여서원을 열었으며, 인천시립박물관장, 한국미술가 협회 중
앙위원, 인천교육대학 및 홍익대학, 서라벌예술대학, 동덕여자대학 강사 등
으로 자신을 혹사했다. 그 후유증으로 뇌출혈에 걸려 그의 오른손이 마비되
었다. 붓을 다시 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자학과 회한과 절망으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으나 마침내는 자신을
다잡아 왼손으로 붓을 들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초심자처럼 마음을 비우고
정련하였다. 그가 십여 년 수련한 작품을 내놓아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좌수전을 열어 오른손 서예보다 더 깊어진 예술세계를 보여 주었다.

서예 전문가들은 검여의 초기 글씨는 웅건(雄健)하고 비해 만년의 좌수
서는 청경(淸勁) 하다고 말한다.

검여는 육서 글씨에 모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전각과 그림에도 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육조체(六朝體)의 행서를 잘 썼으며, 소동파의 글을 좋아
했다고 한다. 그의 작품은 기획전시가 거의 없는데다가 소장가들이 소중히
끼고 있어 일반은 보기가 힘들다. 오히려 사찰편액에 남긴 것을 볼 기회가
많다.

그가 사찰에 남긴 글씨는 많지 않으나 수원 용주사 <용주사>, <경기제일
가람용주사>, <범종각>, 합천 해인사 <범종루>, <사운당> 편액 등이 전하고
있다.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 용주사 사문에 걸려있는 <경기제일가람용주
사> 편액은 무늬 없는 좁은 변죽을 덧댄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액판

좌측 위쪽에 '검여(劍如)'라는 관지가 있다. 이 편액의 글씨는 1968년 이전에 쓴 것으로 북위(北魏) 해서의 필의(筆意)를 지녔으며, 결체(結體)가 단정하고 필치가 주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1976년 오랜 시간 뇌출혈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그는 이름과 함께 빛나는 예술작품을 남기고 6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보충】 최근에 소장 향토사 연구자들이 기술한 일부 인천의 향토사 관련자료를 보면 류희강의 가계에 대한 오류가 보인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것이 그렇다.

류희강이 같은 류씨 집안의 항일투사인 류인무의 아들이라는 것, 백범이 지난날 인천 감옥에서 탈출하여 류인무의 신세를 입은 것을 잊지 못하여 그의 아들 희진을 중국으로 초청했다는 것, 그러나 희진은 장남이라 집안을 지켜야 하므로 차남 희강이 대신 중국 유학길에 올라 백범의 보살핌 속에 공부했다는 것 등이다.

이 세 가지는 고쳐 잡아야 할 오류이다. 류희강의 아버지는 류성무(柳性茂)이고, 한 학자였던 희진은 친형이 아니라 8촌 형이다. 그리고 류희강의 중국 유학은 백범의 초청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12. 명포수 오강산, 고향에서 호랑이를 잡다

호랑이는 조선 말기에 서쪽 지방에 자주 출현했다. 그것과 관련된 명포수 오강산(吳江山)의 전설이 있다.

오강산은 조선 말기에 모월곶면 고잔리(현재의 경서동)에서 광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청년기까지 부모를 따라다니며 광대생활을 했다. 어느 해, 마을 해안가에 군인들이 주둔했다.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외국의 이양선을 막기 위해 주둔하는 포군들이었다.

오강산은 어느 날, 포군들의 사격 연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나무 판때기를 50보 거리에 놓고 화승총을 쏘았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나고 목표물이 박살이 나는 것이 그는 몹시 신기하였다.

“이 녀석아, 저리 비켜라. 총을 쏠 때는 너 같은 잡인을 멀리해야 한다. 오발사고라도 나면 큰 일이니까.”

포군들은 그를 쫓으려 했지만 그는 다른 청년들과 달랐다. 끊임없이 구박을 받으면서도 총 쏘는 일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장교가 말했다.

“이놈아, 집에 가기 싫으면 마실 물이나 떠오너라.”

“네, 그렇게 합지요.”

그는 커다란 가죽 물병을 받아 시원한 우물물을 가득 채워 들고 갔다.

물을 마신 포군들은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어, 시원하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오강산입니다요.”

“가랍 강에 피 산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요.”

“이름 참 좋다. 조선팔도 삼천리 강산이 네 이름이니 말이다.”

“뭐든지 잔심부름 할 일 있으면 저에게 시키십시오.”

그렇게 포군들을 사귄 강산은 어깨 너머로 총 쏘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화약을 총구에 꼬챙이로 다져 넣고 탄알을 쑤서 넣고 약실에 심지를 넣은 다음 불을 붙이고 방아쇠를 당기면 요란한 소리와 함께 탄알이 날아갔다.

어느 날, 포군 장교가 그에게 말했다.

“네. 얼굴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원이 총을 한번 쏘아 보는 것이라고 쓰여 있구나.”

“그렇습니다요, 장교님.”

장교는 총을 내주었다.

“수백 번 보았으니 총알을 썰 수 있겠구나.”

“네.”

그는 척척 손을 움직여 화승총에 화약과 탄알을 장전하고 심지에 불을 붙였다. 목표물을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니 나무 판때기에 그려진 과녁 중심에 명중했다.

“이런 놀랄 일이 다 있네. 첫 사격에 명중하다니 명사수가 아닌가?”

포군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때부터 포군들은 그에게 총 다루는 법과 사격술을 열심히 가르쳤다. 오강산은 부모를 하직하고 충청도 단양으로 내려가 소백산 포수들과 어울렸다. 거기서 몸이 아파 나서지 못하는 늙은 포수의 총을 빌려 메고 사냥길에 올라 곰과 노루를 열 마리나 잡았다. 포수 일행 중 그가 잡은 것이 가장 많았다.

포수들은 입을 떡 벌렸다.

“그렇게 많이 잡다니, 자네는 정말 명포수일세.”

포획물 중 절반을 총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는 나머지를 문경 읍내 시장에 내다 판 돈으로 낡은 화승총을 살 수 있었다.

그는 소백산 포수단을 떠나 지리산으로 내려가 거기 포수들과도 어울렸으

며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대관령과 강계와 삼수 갑산 포수들과도 어울리며 경험을 쌓았다.

그리하여 다섯 해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눈이 날카롭고 판단력이 빠른 명포수가 되어 있었다. 그동안 그가 잡은 호랑이가 열 마리도 넘었다. 그동안 수입도 짹짹하여 그가 포획물을 팔아 바뀌은 은화가 전대에 가득했다.

“아버님, 어머니. 이제 논밭이라도 사고 광대 일을 그만 두십시오.”

오강산의 부모는 그래서 광대 일에서 벗어났다.

그는 거의 집에 머무르지 않았다. 총 한 자루만 메고 전국을 쏘다니다가 몇 달만에 돌아왔다. 그는 밀린 잠을 자며 보름쯤 가족들 곁에 머물렀다.

어느 날, 성초 영감과 그의 아내가 마를 캐러 호두산에 올라갔다. 성초 영감의 아내가 나무 밑에서 큰 호랑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움직여 간신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으나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에 호랑이가 잠을 깨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어머나!” 소리를 외치며 남편에게 달려갔고, 성초 영감은 아내를 쫓아 달려온 호랑이에게 엉겁결에 흙모래를 한 줌 뿌렸다. 그것이 눈에 들어갔는지 호랑이는 길길이 뛰었고 그 바람에 성초 영감의 등판에 호랑이 발톱이 찍혀 상처가 났다.

“사람 살려! 호랑이가 나왔어요!”

부부는 크게 외치며 마을로 달려 내려갔다. 마침 잠에서 깨어 냉수를 마시고 있던 오강산이 화승총을 들고 휘휘 몸을 날려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얼마 후 총성이 나고 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호랑이를 잡았소. 나는 가족만 필요하니까 어서 와서 살코기와 뼈를 가져가시오!”

사람들은 앞을 다뒀 산으로 올라가 호랑이의 발톱까지 잘라 나눠 가졌다.

오강산은 호피를 한양에 가져가 큰돈과 바꾸었다.

소문을 들은 부평부사가 오강산을 불러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범을 잡았으면 내게 알려야 할 것이지 왜 숨겼단 말이나. 당장 호피를 바치거라.”

오강산은 다시 한양에 가서 자기가 잡은 것보다 조금 작은 호피를 사서 부사에게 바쳐야 했다. 그래야 물불기 50대를 맞는 형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오강산은 다시 총을 메고 전국 방랑길에 올랐다. 그렇게 중년에 이르도록 포수로 일했는데 어느 해인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늙어서 몸이 느려져 호랑이에게 잡혀먹었다는 소문도 있고, 의병 부대를 따라 북간도로 갔다는 소문도 들렸다. 그의 늙은 부모는 천명을 다하고 죽었으나 죽는 순간까지 아들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경서동에는 전통적으로 포수들이 많았다. 사냥 중에 호랑이와 조우한 사람도 있다. 경서동 출신의 포수 김금룡(金今龍)은 8·15 광복 다음해에 계양산 경명현에서 노루사냥을 하던 중 호랑이와 맞닥뜨렸다. 그는 한 발을 조준사격했으나 호랑이는 쓰러지지 않고 곧바로 돌진해 왔다. 김포수는 낭떠러지로 몸을 날렸고 거의 동시에 호랑이가 앞발로 그의 등을 때렸다. 그는 어깨가 푹 패이는 깊은 상처를 입고 벼랑 아래로 떨어졌지만 정신을 잃지 않고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호랑이는 그를 내려다보다가 그냥 돌아섰다.

한국 동물학계에서는 남한에서 호랑이가 1930년대에 멸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서쪽 일대의 원로들은 김포수의 말을 믿는다. 그의 어깨 상처를 보았기 때문이다.

【보충】 호두산(虎頭山)은 경서동의 바다 쪽에 반도처럼 돌출하여 박힌 산이다. 범머리산 또는 금산(金山)이라 불렀다. 금산은 여기서 금이 많이 났다 하여 붙은 이름이고, 범머리산은 형용이 호랑이 머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경서동은 작은 취락이 여럿 있었고 전체를 통틀어 썩대고잔이라고도 불렀지만 범머리 또는 버머리라고도 불렀다. 필자도 소년시절에 그런 지명을 들어 익숙하다.

일설에는 호두산에 병인양요 후 이양선의 출몰을 관측하는 망루와 봉수대를 설치했다고 한다. 오강산에게 총 쏘는 기술을 가르친 포군들은 거기 주둔한 것

으로 보인다. 이 산에 동록(東麓)에는 조선 세종대에 대제학을 지낸 류사눌(柳思訥)의 묘(인천 지방문화재)가 있다. 그는 이 마을 태생으로 소년기에 아버지를 여의고 숙부 슬하에서 자라다가 계양산 서쪽에 있던 만일사에 와서 머무르며 공부해 대과에 올랐다.



13. 도술에 능했던 이병로

이병로(李炳魯)는 구한말의 모월곶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나 가정이 빈곤해 글을 배우기가 어려웠다. 한동안 서당에서 글을 배우기는 하였으나 집에서 뒤를 대지 못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나는 더 가르칠 수가 없다.”

그는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렸다.

“저도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나?”

“절에 가면 높은 스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잘 모시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중이 되지는 말아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그를 보냈다.

그는 충청도 계룡산에 가서 한 기이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이긴 하지만 불가의 제도적 제약을 거부하고 동굴 암자에서 독거하는 분이었다. 그는 거기서 십 년 동안 도술을 배웠다.

스님이 돌아가시자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난 뒤였고 세상은 변해 있었다. 인천항이 개항되었고 외래문물이 마구 밀려들고 있었다. 그는 세상을 떠들며 중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쳐 주었다.

어느 날 그는 저자에서 야바위꾼이 도술이라고 속여 사람들의 돈을 긁어내는 것을 보았다.

“쫓쫓 눈속임을 하는군. 저건 도술이 아니야.”

그러자 누군가가 당신은 도술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나무 토막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쉬운 것으로 하나만 보여드리지요. 나무토막을 잠깐 빌려주세요.”

그는 정좌한 다음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주문을 외었다. 그러자 얼마 후 나무토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여다보았다. 나무토막들은 더 크게 더 빠르게 움직이다가 마침내는 공중에 떠올라 부딪쳤다.

“야, 이건 진짜 도술이다!”

사람들은 탄성을 올렸다.

그는 도술 시범이 끝난 뒤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사람들 속에 섞여 구경을 한 국밥집 주인이 국밥 한 그릇을 주자 그것을 훌훌 먹고는 그 저자를 떠났다.

그는 물욕이 없었다. 그냥 그렇게 도술을 보여주고 밥 한 끼를 얻어먹으면 만족했다. 사람들이 물건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면 그는 조용히 그 자리에 정좌했다. 그런 다음 주문을 외우고 두 손을 허공에 모아 기원하고 입을 열었다. 미리 준비한 낫세숫대야를 얹어놓은 뒤 다시 주문을 외고 세숫대야를 뒤집으면 그 속에서 쌀이 나오고 옷이 나왔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도술의 힘을 빌 때가 가장 많았다. 그는 신장(神將)을 불러와 환자 몸에 든 병을 뽑아낸다고 하였다. 허무맹랑한 미신이지만 그의 도술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

옛 서곶과 김포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살던 이병로는 삼일 만세운동이 일어나던 해 더 큰 도술을 배우러 다시 계룡산으로 간다 하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14. 효자 김제현

백석동 한들 마을 광산김씨 집안에 김제현(金悌鉉)이라는 효자가 있어 그 이름이 세상에 퍼져 칭송을 받았다.

인천에 개화의 문물이 밀려오던 구한말이었다. 김제현은 스물 다섯 살의 젊은이로 아내와 함께, 홀아비가 된 아버지를 봉양하며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다.

그는 아버지를 업고 십리 길을 달려 의원한테 갔다.

진맥을 한 의원이 말했다.

“중풍이 걸리셨군요.”

그 말에 김제현은 통곡했다.

“아버지, 제가 잘 거뉘드리지 못해 병이 걸리셨습니다.”

그의 울음이 너무 슬퍼서 의원이 위로할 겸 병에 대해 설명했다.

“중풍이란 병이 잘 먹는다고 안 걸리고 못 먹는다고 걸리는 병이 아닐세. 사람이 노쇠하면 혈행(血行)이 나빠져서 걸리는 병이네. 자네 아버님은 반신불수 상태에 빠지셨네.”

의원은 뜸과 함께 침을 놓아주었다.

김제현은 아버지를 업고 울면서 집으로 걸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등위에서 말했다.

“아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살만큼 살았고 이미 너의 효도를 받았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

“아니에요. 어머니도 제가 불효를 해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병을 이기고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 날부터 매일 김제현은 아버지를 업고 의원에게 가서 침을 맞게 하고 다시 집으로 업고 왔다. 그리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잠

을 잤다. 아버지가 자다가 기침을 하거나 몸을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방이 조금 춥다 느껴지면 곧장 밖으로 나가 아궁이 앞에 준비해 뒀던 땀감을 넣고 불을 땀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몸을 주물러 드렸다.

낮에 논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벼, 보리, 콩 등 곡식을 하나씩 꺾어다 보여드렸다.

“아버지, 작년보다 일찍 벼이삭이 패었어요. 벼 베기를 며칠 당겨야겠지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하려무나.”

“아버지, 콩꼬투리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 콩이 풍년이면 두부를 만들자꾸나.”

그렇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어 아버지에게 사는 보람을 갖게 하였다.

흔레나 회갑연 등 남의 집 경사에 가면 음식을 싸 갖고 와서 아버지에게 드렸다.

“인절미가 맛있어서 가져왔어요.”

“오냐, 참 맛있구나.”

그렇게 다섯 해를 모셨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문상 온 사람들이 그의 슬픔을 위로하면서도 이렇게 덧붙였다.

“자네 아버님은 행복하게 눈감으셨을 거야. 늙어 병들었을 때 자식의 효도를 받는 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부족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요.”

그는 정성을 다해 장례를 모시고 3년 동안 매일 아침 부모 산소에 가서 절했다. 그리하여 근방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김제현의 효행은 지금도 백석동을 지키며 사는 광산김씨 가문의 긍지와 자랑으로 살아 있다.

15. 세 사람의 열녀

울도의 영렬(永烈)

200여 년 전, 울도(栗島)에 영렬이라는 노비가 있었다. 정씨(鄭氏) 가문에 예속되어 16세에 이르렀는데 착하고 부지런하여 주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비록 노비 신분이었지만 자식처럼 아꼈으며 영렬도 주인을 진심으로 섬겼다.

정씨 집안에는 종인(鍾仁)이라는 그녀와 동갑 짜리 노복이 있었다. 비록 남자 종과 계집종의 신분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동무처럼 지내고 친남매처럼 의지하였다.

어느 날, 주인이 두 사람을 앉혀 놓고 말하였다.

“너희가 서로 좋아한다는 걸 내가 안다. 내가 혼례를 치러 줄 테니 평생의 반려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 나도 내 목숨이다 하는 날까지 너희를 지켜 주마.”

노복 종인과 노비 영렬은 큰절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주인 나오리. 저희들의 평생 소원입니다.”

주인 정씨는 노비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초례청을 만들어주고 혼례를 올리게 했다. 젊은 부부는 기쁨에 넘친 표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같이 밭에 나가 오순도순 김매기를 하고 우물에서 물 길을 때도 같이 가서 서로 무거운 것을 들겠다고 투정을 하였다.

두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였다.

“저 두 사람을 보면 행복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네. 비록 노비이지만 자기가 행복하다고 여기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지.”

“참으로 부럽네. 부부 금실이란 저래야 하네.”

“저 두 사람은 전생에서 이생까지 인연이 이어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하네.”

그러나 너무 큰 행복은 하늘도 질투한다던가. 두 사람의 인연은 길지 못했다. 두 사람이 열아홉 살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다. 주인 정씨의 아들이 낚시질하는 것에 동행했던 종인이 주인 아들이 물에 빠지자 몸을 던져 구해내고 그는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남편의 주검을 앞에 놓고 영렬은 슬프게 울었다. 주인집은 아들을 대신해 죽은 노복을 위해 엄숙하게 장례를 지내주었다.

“이미 떠나간 사람을 어찌겠느냐. 네 노비문서를 없애겠다. 그런 다음 우리 식구가 되어 살자꾸나.”

주인이 위로하였으나 그녀는 지친 얼굴을 가로 저었다.

그리고 그 날 밤, 남편이 죽은 바닷가 소나무에 목을 매 자결했다.

주인 정씨와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정절을 가상히 여겨 합장해 주었다. 비록 노비 신분이었으나 조정에서도 열녀의 정려(旌閭)를 내려 칭송하였다. 그 정려는 세월이 흐르면서 허물어졌고, 마을 뒷산에 있던 두 사람의 무덤은 울도에 발전소가 들어서며 없어졌다. 그러나 원창동과 석남동의 토박이로 오십대 이상 된 원로들은 이 가혹한 전설을 기억하고 있다.

【보충】 울도는 우리말로 밤염이라고 불렀다. 물에서 보면 밤톨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898년에 화약고가 만들어졌으나 곧 폐지되었다. 원창동 환자곶 해안에서 썰물을 따라 갯벌을 걸어나가 섬에 가고, 밀물에 앞서 돌아올 수 있었다. 1969년 이후 울도와 이도(耳島)와 묘도(描島)를 연결하여 대규모 간척 사업을 시작하면서 육지가 되었고 그 자리에 경인에너지와 인천화력발전소가 자리잡았다.

대곡동의 당씨(唐氏)

대곡동에 열녀 당씨 부인의 묘와 정렬비가 있다.

당씨는 순조 11년(1811)에 태어나서 고종 27년(1890)에 죽었다. 김포의 밀양당씨 가문에서 박종주(朴宗柱)에게 출가해 대곡동에 살았다.

친구들이 박종주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착한 아내를 두어 좋겠네. 시부모에게 공손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편에게도 다소곳하고 맡일도 열심히 하고 흠잡을 데가 없네. 좋은 아내 둔 행복을 오래 누리려면 자네가 몸이 튼튼해져야 하네.”

박종주는 머리를 끄덕였다. “알겠네.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네.”

그는 집에 가서 친구들과 나눈 말을 아내에게 들려주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아내예요. 남들이 좋게 봐주니 부끄러워요.”

박종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이 고맙소. 내가 몸이 약해 당신 마음에 걱정을 안겨주는 게 미안하오.”

“아니예요. 제가 부덕해서 당신이 몸이 쇠약한 거지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종주가 몸져 누워 버린 것이었다. 그의 아내 당씨는 의원을 데려 오고 좋은 약을 구해 쓰고 밤을 새워 구원을 하였지만 남편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다.

당씨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놓고 기원하였다.

“천지신명이시여, 저의 지아비를 살려주시옵소서. 할 일이 많은 분입니다. 차라리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온 마을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저러다가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죽겠네.”

“세상에 저런 열녀가 없네.”

남편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그녀는 자신의 무명지를 깨물어 남편의 입에 흘려 넣었다.

“여보, 제발 힘을 내세요. 내 피를 마시고 힘을 내세요.”

그러나 남편은 아쉽게도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남편을 장례 지내고 몸져누웠다. 이번에는 그녀가 시부모와 자

식들을 위하여 살아나기 위해 분투하였다.

마을의 인심이 그녀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고귀한 부덕입니다. 당씨 부인을 살려야합니다.”

그들은 의원을 모셔오고 방에 불을 때 주고 격려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그녀는 힘을 회복해 일어났다. 그리고 삼 년 동안 남편의 묘를 지키고 자식을 키우며 시부모를 봉양하였다.

그녀가 늙어가던 1924년, 향교의 유생들이 김포 군수에게 정렬비를 내려 주기를 탄원하였다. 김포 군수 조준구(趙駿九)는 돈과 식량을 내려 격려하였다. 그리고 문장이 뛰어난 그녀의 손자 박제준(朴齊駿)과 박제정(朴齊定)에게 비문을 짓고 쓰게 하였다.

심곡동 이도명의 아내

70여 년 전에 심곡동에 이도명(李道明)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았다. 자동차가 흔하지 않던 1930년대에 그는 자동차 운전사로 일했다. 당시 자동차 운전사는 처우가 좋고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다. 그는 인천항과 서울을 왕래하며 귀한 손님들을 실어 날랐다.

남편이 비록 이삼일에 한 번 집에 들어오는 사정이 있었지만 부부는 행복하고 금슬 좋게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자동차가 고장나 절벽에 추락하여 목숨을 잃었다.

남편을 장사 지내고 나서 그녀는 시부모에게 말하였다.

“제가 목숨을 끊어 남편의 뒤를 따르고 싶지만 어린것이 눈에 걸립니다.”

시부모는 그녀를 위로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라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녀의 말은 허사가 아니었다. 남편 삼년상을 치르고 아기가 네 살이 되자 아이를 부탁한다는 간곡한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다.

이씨 가문과 마을사람들은 그녀의 정절을 높이 기려 심곡동에서 공촌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열녀비를 세웠다. 그러나 그 열녀비는 오래 가지 못했

다. 세월이 지나고 가치관이 급격히 바뀌면서 그녀의 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이 죽었다 하여 네 살 먹은 어린 자식을 두고 자결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마을의 청년들이 비석을 쓰러뜨리자 수구적인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다시 세워놓았다. 이씨 문중에서도 그것을 없애면 문중에 나쁜 일이 생길 것이란 예감에 비석이 세워져 있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비석은 쓰러지고 세워지는 일을 몇 번 거듭했다.

그러나 다시 세월이 흐르고 그녀의 정절이 전설이 되어 묻히면서 비석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16. 시천리 박장사

시천동에서 박천봉(朴天奉)이라는 장사가 살았다.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충청도에서 떠돌아온 머슴이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체구가 다부지고 무쇠처럼 단단했다. 단옷날이나 추석 때 씨름판이 벌어지면 그의 독무대였다.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으며, 한꺼번에 세 사람이 달려들어도 그를 눕히지 못했다.

그는 평소에 말이 없고 묵묵히 일만 하는 부지런한 머슴이었지만 술을 마시면 달라졌다. 취하기만 하면 힘 자랑을 하고 주정을 부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그를 머슴으로 고용한 주인은 물론 이웃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워낙 힘이 세서 여럿이 붙잡으며 말려도 소용없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그가 취했을 때 이 마을의 어떤 농부가 지나가는 말로 자기의 걱정거리를 늘어놓았다.

“나는 집에 소가 없어서 밭갈 일이 걱정이네.”

취한 박천봉이 이 말을 들었다.

“까짓 거, 내가 소 노릇을 해보지요. 아저씨는 쟁기를 잡으라고요.”

“정말인가, 자네?”

“내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인간으로 보입니까?”

박천봉은 그 길에 그 농부의 집으로 달려가서 무거운 쟁기를 한 손으로 들어 옆구리에 끼고 쏜살같이 달려왔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는 가운데 밭갈이가 시작되었다. 박천봉은 쟁기 앞머리의 밧줄을 자기 어깨에 걸고 힘차게 끌었다. 너무 빨라서 주인이 쟁기 날을 땅속 깊숙이 박았으나 멈춤이 없었다. 메마른 밭의 흙이 두 쪽으로 갈라지며 이랑을 만들어 나갔다.

“저런, 저런! 황소보다 더 힘이 좋군.”

구경하던 사람들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로 끌면 한 나절이 걸렸을 밭두렁을 반나절 안에 끝낸 터라 주인은 고마워서 품삯을 주려 했다. 그러나 박천봉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냥 몸이나 풀어 보려고 한 일이니 술이나 사주세요.”

주인이 술을 주문하자 그는 한 말을 마셨다. 그리고는 주정을 시작하는데 그가 길길이 뛰며 힘 자랑을 하니 손목 굽기의 나무가 뽑혀져 나가고 뒷간 지붕이 그가 한번 잡아당기면 우루루 무너졌다. 허술한 초가집은 그가 기둥에 밭길질을 하면 무너질 듯 흔들거렸다.

참다 못한 청년들이 합세하여 등뒤로 다가가서 굵은 밭줄로 묶었다. 그리고는 아름드리 느티나무에 끽끔 묶었다. 그러나 박천봉이 용을 쓰자 밭줄이 툭툭 끊겨져 나갔다.

밭줄에서 풀려난 박천봉은 화가 나서 느티나무를 흔들었다. 나무는 마치 부리가 뽑힐 듯 흔들거렸다. 그것을 본 청년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다. 박천봉은 몸도 빨라 두 청년을 붙잡아 양손에 하나씩 덜미를 잡아 느티나무 가지 위로 던져버렸다.

“사람 살려요!”

청년들은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라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려 목숨을 건졌다.

어느 날 그가 다시 취해 뿔아떨어졌을 때, 관아에서 포졸들이 잡아가려고 들이닥쳤다.

“네가 천하장사냐. 어디 맛좀 봐라.”

불문곡직하고 육모방망이로 마구 때리면서 단단한 밭줄로 묶은 뒤 우마차로 실어다 옥에 가두었다.

붙잡히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박천봉을 사흘 동안 끽끔 앓으며 음식도 먹지 못했다. 그러나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감옥의 벽을 부숴 무너뜨리고 탈옥했다.

“옥졸 놈들아, 나는 간다.”

그는 큰소리로 외쳤다.

“저놈이 탈옥하네!”

감옥을 지키는 옥졸들은 깜짝 놀라 달려갔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도 제지하지 못했다.

“덤빌 테면 덤벼 봐라. 네놈들의 뼈라는 뼈는 모두 부숴 줄 테니까.”

박천봉이 감옥 벽 속에서 기둥 하나를 뽑아 휘두를 기세를 보이기 때
문이었다.

박천봉은 부평 관아의 담을 훌렁 뛰어넘었다. 관아에 있던 모든 옥졸
과 나졸들이 총과 칼과 창을 들고 뒤쫓았으나 눈 깜짝할 사이에 봉우리
하나를 넘어 사라져 버렸다.

그는 나졸들이 쫓아올 것에 대비해 계양산에서 큰 바위 하나를 뽑아
안고 거기서 십 리나 되는 시천동 꽃피 마을까지 갔다.

“천봉아, 너 탈옥했구나.”

주인은 겨우 그렇게 알은체만 할 뿐 더 말하지 못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인 어른. 나는 떠납니다. 새경은 언젠고 받으러 오
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바위를 안아들고 달려나갔
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17. 천하장사 이백산, 복산 형제

근세에 오류동 봉화촌 고성이씨(固城李氏) 집안에 형제 장사가 태어났다. 백산(白山)과 복산(福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 형제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생존했다면 90세와 88세 정도에 이르는데 검단 지역에는 이들에 대한 일화가 많이 전해져 온다.

형 백산은 자신이 태어난 봉화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애를 마쳤는데 성품이 온순하기 짝이 없어서 마치 순한 황소 같았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하여, 아이들이 “백산 아저씨, 매달아줘요.”하고 매달리면 양쪽 팔을 옆으로 쪽 뻗어 한 팔에 다섯 명씩 걸고 손살같이 걸어갔다.

남의 집에 품앗이를 하면 자신은 보통 사람의 다섯 배는 일하는데도 억울하다는 표정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아, 자네는 다섯 뭇의 일을 하니까 다섯 날치 품앗이로 따져 달라고 하게.”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는 순박한 눈을 소처럼 크게 뜨고 고개를 흔들었다.

“똑같은 것이예요. 힘 약한 사람도 자기 힘 자라는 데까지 일하고 한 뭇을 하는 거고 저도 힘 자라는 데까지 일하고 한 뭇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대신 밥을 많이 먹잖아요.”

마을의 농부들은 너도나도 백산과 품앗이를 하려고 했으므로 그는 하루도 쉴 사이가 없었다. 그래도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하였다.

그러나 그가 화를 낸 때도 있었다. 소가 없는 집에 품팔이를 가서 소 대신 쟁기를 끌었는데 쟁기날이 부러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의 책임이라고 우겼다.

“네가 마구 끌었기 때문에 쟁기가 부러졌으니 품삯을 줄 수 없어.”

백산은 눈을 크게 떴다.

“소가 쟁기를 끌다가 쟁기가 부러지면 소가 물어내야 하나요?”

주인이 말했다.

“백산아, 네가 사람이지 소냐? 다음부터 소라고 부르고 밥 대신 소여물을 주라?”

주인은 백산이 끝없이 착하다는 것을 알고 억지를 써서 말한 것이었다.

“아니에요. 난 소가 아니라 이백산이에요.”

백산은 그 때 마당의 바위에 앉아 있었는데 끄 힘을 쓰자 잇몸에 박힌 어금니처럼 뿌리가 깊은 바위가 쑥 뽑혀 버렸다. 놀란 주인은 아무 말 못하고 품삯을 내주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사실대로 말하자 아내가 꾸짖었다.

“당신은 잘못이 없지만 잘못된 거예요. 당신한테 품삯을 준 사람은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당신이 무서워서 준 거니까요.”

그의 아내는 백산만큼이나 착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힘이 장사인 남편이 사람들과 싸워 다치게 할까 봐 늘 걱정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싸워서 안 되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테니 남들이 때려도 맞기만 해요.”

백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은 그것을 안 저자의 불한당 각다귀들이 스무 명이나 덩벼 몰매를 때렸다.

“바보 백산아, 어디 한번 덩벼 봐라.”

백산은 매를 맞다가 남의집 뒷마루로 달아났다. 거기까지 쫓아간 불한당들이 돌을 던지며 놀렸다.

“이눔덜아, 내가 덩비면 네눔덜은 모두 배가 터져 죽어.”

백산은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주먹으로 딱딱하기 짝이 없는 봉당을 쿡 찍었는데 팔목까지 쑥 파여 들어갔다. 그것을 보고 불한당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동생 복산은 결혼 후 분가하여 오룻골에서 살았다. 그는 배를 몰고 서해

거침도(巨簷島)로 가서 구들돌을 캐서 물으로 신고 와서 팔아 삶을 영위했다. 그도 역시 형처럼 우직하기 짝이 없었다. 뜻이 없는 전마선을 끌고 노를 저어 다녔는데 구들돌을 가득 신고도 노를 저으면 돛을 올린 빈배를 거뜰하게 앞질렀다.

어부들이 소리쳤다.

“복산이, 자네는 왜 돛단배를 몰지 않는가?”

복산은 큰소리로 대답했다.

“돛을 올리고 내리는 게 귀찮아서요.”

“맨날 노를 젓는 게 힘들지 않는가?”

“심심하지 않고 좋지요.”

그렇게 말하며 복산은 사람 좋은 웃음을 웃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애써서 캐서 신고 온 구들돌을 싸게 팔았지만 일 욕심은 많았다. 배에 너무 구들돌을 많이 실어 뱃전에 물이 찰랑거리며 걸핏하면 구들돌을 바다에 던지곤 했다.

지나가던 어부들이 소리쳤다.

“여보게, 그렇게 버리면 아깝지 않은가?”

“까짓 거 또 캐면 되지요, 뭐.”

그러면서 그는 그냥 웃었다.

그는 서곶의 범머리 포구, 검단의 안동포 포구, 좌동의 상무지 포구, 양곡의 대명리 포구 등 근방의 포구로 많은 구들돌을 실어 날랐다. 그가 제공하는 구들돌은 얇고 단단한데다가 워낙 양이 많아 근방의 온돌방들은 거의 그의 것으로 만들어졌다.